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보



2010 Spring Vol.37

공지사항

-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 수가인상 자원 확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안내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복지부 FAQ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안내

특별좌담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

www.igbma.or.kr

경상북도의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2010. 3. 27(토) 18:00

호텔제이스 3층 그랜드볼룸



경상북도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찰·떡·궁·합”

[CCB대표 + ARB원조]
Amlodipine + Losartan

고혈압약의 이상적인 Combination¹⁾

- 아모잘탄[®]정은 목표혈압 도달과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에 **최적의 CCB+ARB 복합제**입니다.²⁾
- **혈당 및 지질 수치를 개선**하여 당뇨,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환자 등에 유리한 복합제입니다.³⁾
- HCTZ이노복합제에 비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⁴⁾
- **요산 수치를 감소**시킵니다.⁴⁾
- 부종 등 부작용 감소로 **우수한 내약성이 입증**되었습니다.⁵⁾
- 아모잘탄[®]정은 “한 알 가격, 한 알 복용” 복합제로 **경제성, 편리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⁵⁾



Global 복합고혈압약
아모잘탄[®]정 5/50mg
5/100mg
(암로디핀칼슘산염/로자탄칼륨)

Reference

- 1) ACCOMPLISH Study
- 2) Amosartan Ph II & III Study, COACH Study, etc
- 3) Amosartan Ph II Study, Sharma AM et al 2007, Fogari R et al 2008
- 4) Amosartan Ph II Study, Saruta Y et al 2007
- 5) Amosartan Ph II & III Study, etc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Contents

2010년 봄호 (제37호) *경북의사사회*



5



14



표지설명
제1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상 기념촬영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중영

발행일 2010년 4월 27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중영 · 문기혁 · 김중규 · 장태영

7102-82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053) 941-7785 FAX.(053) 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전애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 555-3336 FAX.(053) 556-3273

4 특별기고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도록... · 오필근

5 포토뉴스

8 회무소식

16 회무단신

20 학술상 · 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23 공지사항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수가인상 재원 확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안내

「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FAQ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안내

32 신임회장소식

34 분회 및 병원소식

46 지역의사회 탐방

경산시의사회 / 고령군의사회

50 특별좌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 정능수

52 시사칼럼

약값의 진실을 밝힙니다 · 의약품정책위원회

54 회원 문예

수필_ 도라산(都羅山)의 눈물 · 전경홍

가.팔.환.초 · 서역수

아버지 · 김광만

시_ 일상의 양식, 보이지 않는 길 · 김의홍

mania를 찾아서_ 왜 지금 판소리인가? · 이재원

66 개원이전현황

분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 | |
|----------------|---------------------------------------|
| 2010. 4. 7 | 제38회 보건 의 날 기념식 |
| 2010. 4. | 제37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
| 2010. 4. 25 | 제6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
| 2010. 5. 1~2 |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
| 2010. 5. 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 2010. 5. 15~16 |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학술대회, 친선의 밤, 의학제) |
| 2010. 5. 16 | 전국의사등반대회 |
| 2010. 5. | 2010년도 회원정기신고 |
| 2010. 6. 5 |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
| 2010. 6. 18 | 의사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교육 |

| | |
|-----------------|----------------------|
| 2010. 6. | 제38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
| 2010. 9. |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
| 2010. 10. 16~17 | 전북 · 경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 |
| 2010. 10. | 제39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
| 2010. 11. 7 |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
| 2010. 11. | TBC무료개안수술 |
| 2010. 12. | 연말 복지시설 방문 |
| 2011. 1. | 제40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
| 2011. 3. | 2010년도 전체이사회 |
| 2011. 3. | 2010년도 회무감사 |
| 2011. 3. |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오 필 근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새로운 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새봄과 함께, 경북도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2,900여 경북의사회 여러분 모두에게 새희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는 짧은 시간에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과 질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수준 부문에서 3위, 진료수준 분야에서 5위로 종합평가에서 일본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가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헌신적인 희생과 열정으로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힘을 결집시킨 의사회원분들의 덕분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보건학적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의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북의사회원분들께서 도민의 건강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픈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큰 축인 경북의사회의 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건강과 수꾼이 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도록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경북의사회와 보험자인 공단이 서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때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일도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정착에 힘써 주신 경북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봄과 더불어 경북의사회가 더욱더 전진하시고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모두가 새로운 발전을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 1 2 총회에 참석한 주요내빈들
- 3 개회식 장면
- 4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위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이석균 회장, 김성훈 의협학술이사,
김관용 도지사, 전해숙 국회의원

아래 변영우 윤리위원장, 천종욱 감사, 정능수 부의장,
박일영 기획이사



- 1 김광만 · 이경섭 회원의 의협회장 표창 수상
- 2 대외인사에 대한 감사장
- 3 모범회원에 대한 표창





- 1 이원기 직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 2 모범분회 표창(안동시의사회)
- 3 조제일 세무고문에게 위촉패 수여
- 4 제1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여
- 5 보조위원들
- 6 백승인 대의원의 질의





경북의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총액계약제 추진 반대’ 결의 대내외 봉사사업 전개 등 사업계획 확정

이날 총회에서는 내빈 다수와 대의원 62명(재적 79명)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상되는 학술상은 이정호(경주, 동국대의대 신장내과)회원이, 봉사상은 이종규(울진, 연세가정의학과의원)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본회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 대구 호텔제이스에서 개최하고 ‘총액계약제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과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 전해숙 국회의원, 이원기 의협 부의장, 김성훈 의협 학술이사,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본회 신은식·변영우 고문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김성규 대구지원장, 동원약품 현수환 회장 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 62명(재적 79명)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료계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의료계 내부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 의사를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추진 등으로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총액계약제 추진을 통해 의료계를 더욱 더 규제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최선을 다해 처방을 해도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이 단결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 때 보여주시던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임 3년 동안의 중점사업으로 회원간의 소통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치인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료와 관련한 현안이 국가와 국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단합과 협조를 바란다” 라고 하였으며, 이어 김성훈 의협 학술이사와 김관용 도지사, 전해숙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박일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송준화(포항)·이홍우(경주)·문상웅(안동)·민명기(구미) 대의원을 보조위원으로 선정하고 대의원 79명중 62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을 선언하고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는 이의없이 박수로서 통과시켰으며, 2009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와 일반 회계 및 적립금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의료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료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대외 및 대내 봉사사업 전개 등의 2010년 새해 사업목표를 의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액도 지난해보다 6천만원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확정했다.

윤리위원회 위원 추인에서는 변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윤리위원을 추인하고, 선거관리규정중 현행 ‘대의원 20인 이상 추천서(복수추천불가)’로 되어있는 단서조항을 ‘대의원 20인 이상 추천서’로 개정된 사항을 보고 하였으며, 법률고문 4명과 세무고문 1명을 위촉하여 의료현안에 대비토록 했다.

또한 정능수 부의장이 낭독한 경북의사회는 결의문 채

경북의사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돼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시행하겠다고 일정까지 제시했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을 통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돼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시행하겠다고 일정까지 제시했다”며 “건보공단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논쟁을 즉각 중지할 것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왜곡된 정책을 중지할 것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총궐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총회에 앞서 본회 백승인 의약품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복제약값 거품과 그에 따른 저가약(복제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끄고, 약값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상되는 학술상은 이정호(경주, 동국대 신장내과)회원이, 봉사상은 이종규(울진, 연세 가정의학과의원)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자 명단

- △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 김광만·이경섭 회원
- △ 공로패 : 이원기 직전회장
- △ 대외시상 : 정순재(심평원대구지원 부장)·정준배(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사무관)·구진만(경산소방서 지방소방장)·김미선(의협 보험국장)·이정환(의협 신문 기자)
- △ 모범분회 : 안동시의사회
- △ 유공회원 : 성후식·임시수·박무영·민명기·배경일·김진업 회원
- △ 모범위원 : 오춘석 회원
- △ 대내시상 : 오재국(포항성모병원 계장), 김삼식(순천향구미병원 대리), 김명숙(영천시시의사회 간사)

위촉자 명단

- △ 법률고문 : 이수환(포항)·정연경(경주)·권기준(안동)·성상희(구미) 변호사
- △ 세무고문 : 조제일(대구) 세무사

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본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3/27)에서 논의된 부의안건 중 중앙회 처리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 처리하였음.



1. 건강보험제도 관련 개선 건의

- 1)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반대
 -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증가시키고 처방 왜곡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반대해 줄 것을 건의
- 2) 차등수가제도 폐지
 - 재정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
- 3) 합리적 수가 인상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수가계약 방식 등의 변경으로 합리적 수가 인상이 되도록 건의

2. 건강보험 심사관련 개선 건의

- 1)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 금액 조정
 -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 변경으로 65세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15,000원 기준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
- 2) 골다공증 치료제의 인정기준 연장
 -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의 인정기준상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 토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3. 간호사의 채혈 및 심전도 검사 확대 건의

의료법에 채혈 및 심전도검사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만 허용되고 있는데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도 채혈과 심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4. 건강보험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건의

현 보험재정 지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실상을 대중매체에 홍보하여 모든 재정적인 어려

움을 의사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그릇된 술책으로부터 국민을 바르게 이해시키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를 건의

5. 증명서 및 연말정산용 서류 간소화 건의

각종 증명서와 연말정산용 서류(한국납세자연맹에서 주장하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등)의 통폐합 및 간소화 하여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서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줄 것을 건의

6. 원격진료 반대 건의

원격진료는 특정 의사나 병원으로 편중되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진료의 특성상 오진, 의료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격진료를 반대하여 줄 것을 건의

7.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건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강력 조치와 피부미용사, 약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8. 보건소장에 의사 임용 건의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 의사 보건소장만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반드시 의사를 임용토록 건의

9.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건의

공공의료 및 관련기관(공무원, 보건소장 등)에 맞는 인재양성과 더불어 우수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협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설 건의

10.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처 T/F팀 구성 건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예:신종플루, 광우병

파동, A형간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과 더불어 언론을 통해 오도된 의학상식 등을 지적하는 등 발빠른 입장이 표명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 건의

11. 전문직 퇴직 연금 상품 개발 건의

개원회원을 위하여 의협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의사 퇴직연금 상품을 개발하여 개원회원이 은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상품 개발 건의

12. 의협 공제회 활성화 건의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협 공제회 의무

가입과 배상공제에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대 회원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

13. 해외 의료봉사 희망자 효율적 관리(인력풀 등)

세계 각국에서 지진, 해일 등 재난발생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을 위해 해외 의료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을 사전에 모집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풀 구성과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

14. 기 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 1) 세입총액 ₩465,086,630원 (자 : 2009. 4. 1)
- 2) 세출총액 ₩465,086,630원 (지 : 2010. 3. 31)

■ 총괄표 (단위 : 원)

| 세 입 부 | | | |
|-------|-------------|-------------|-------------|
| 과 목 | 예 산 액 | 결 산 액 | 증 △ 감 |
| 회 비 | 313,330,000 | 351,060,000 | △37,730,000 |
| 기타수입 | 29,182,117 | 56,538,747 | △27,356,630 |
| 이월금 | 57,487,883 | 57,487,883 | |
| 합 계 | 400,000,000 | 465,086,630 | △65,086,630 |

| 세 출 부 | | | |
|-------|-------------|-------------|-------------|
| 과 목 | 예 산 액 | 결 산 액 | 증 △ 감 |
| 사업비 | 119,000,000 | 129,503,680 | △10,503,680 |
| 회의비 | 16,000,000 | 15,886,000 | 114,000 |
| 판공비 | 26,000,000 | 26,000,000 | |
| 경조비 | 15,000,000 | 11,720,000 | 3,280,000 |
| 활동비 | 41,000,000 | 39,820,000 | 1,180,000 |
| 사무비 | 109,320,000 | 109,131,070 | 188,930 |
| 적립금 | 19,000,000 | 19,000,000 | |
| 수용비 | 30,500,000 | 28,373,664 | 2,126,336 |
| 예비비 | 24,180,000 | 404,420 | 23,775,580 |
| 이월금 | | 85,247,796 | △85,247,796 |
| 합 계 | 400,000,000 | 465,086,630 | △65,086,630 |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서(안)

- 1) 세입총액 ₩460,000,000원 (자 : 2010. 4. 1)
- 2) 세출총액 ₩460,000,000원 (지 : 2011. 3. 31)

■ 총괄표 (단위 : 원)

| 세 입 부 | | | |
|-------|-------------|-------------|-------------|
| 과 목 | 2010 예산액 | 2009 예산액 | 증 △ 감 |
| 회 비 | 328,500,000 | 313,330,000 | △15,170,000 |
| 기타수입 | 46,252,204 | 29,182,117 | △17,070,087 |
| 이월금 | 85,247,796 | 57,487,883 | △27,759,913 |
| 합 계 | 460,000,000 | 400,000,000 | △60,000,000 |

| 세 출 부 | | | |
|-------|-------------|-------------|-------------|
| 과 목 | 2010 예산액 | 2009 예산액 | 증 △ 감 |
| 사업비 | 159,000,000 | 119,000,000 | △40,000,000 |
| 회의비 | 18,000,000 | 16,000,000 | △2,000,000 |
| 판공비 | 26,000,000 | 26,000,000 | |
| 경조비 | 15,000,000 | 15,000,000 | |
| 활동비 | 44,000,000 | 41,000,000 | △3,000,000 |
| 사무비 | 112,100,000 | 109,320,000 | △2,780,000 |
| 적립금 | 20,000,000 | 19,000,000 | △1,000,000 |
| 수용비 | 33,000,000 | 30,500,000 | △2,500,000 |
| 예비비 | 32,900,000 | 24,180,000 | △8,720,000 |
| 합 계 | 460,000,000 | 400,000,000 | △60,000,000 |



결 의 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월 17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이사장의 이러한 일방적인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 의료비 증가가 마치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인 것처럼 운운하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오히려 방만한 공단조직, 잘못된 의약분업, 무분별한 보험급여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 낮은 보험료 및 높은 보험약가 등이다. 정이사장은 보험재정이 악화된 점에 대하여 진솔한 사죄를 먼저 하여야 한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국민건강이 위협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일정까지 제시한 일방적인 발표를 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위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총액계약제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논쟁을 즉각 중지하라.
1. 정부는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발언과 정책을 중지하라.
1. 우리들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경상북도의사회는 총결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3월 27일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 일동

경상북도의사회

‘2009년도판 회원명부’ 발간

회원명부를 통해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회원간 소통”과 “지역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정보교류 및 유대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신규회원의 증가와 연락처 변경 등 회원상호간의 사고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2009년도 회원명부를 지난 2010년 2월 8일 발간하였다.

이석균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보는 회원 상호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자주 명부를 찾아주시고 회원님 상호간 의료현안에 관한 의견도 자주 나누면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자’ 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번에 발간된 회원명부를 통해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회원간 소통”과 “지역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정보교류 및 유대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라고 하였다.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명부는 16절 규

격형태로 발간되어 회원들의 사진은 물론 성명(한글 및 한자), 생년월일, 의료기관명, 주소, 병원전화, 팩스, 자택전화, 휴대폰, 이메일, 면허번호 등이 각 시군의사회 및 병원별로 수록되어 총 326쪽으로 구성되어 2009년 12월 말 본회 전산등록기준 2,900여명이 등재되어 회원 서로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명부는 본회 집행부, 의장단 명단을 비롯해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 인명부, 부록편으로 회칙 및 세칙, 의협 및 시도의회, 행정·유관기관, 시군보건소 연락처, 색인표 등이 담겨져 있으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김광만 부회장, 위원에 한형원·박일영 기획이사, 김종영 공보이사가 참여하여 수고해 주셨다.

한편 2009년도 회원명부는 지난 2월 9일 개원회원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며, 근무 회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



경상북도의사회 – 경북지방경찰청 교류 협약 체결식

경찰청 가족들의 봄철
건강을 위해 황사마스크
1,000개를 구입, 전달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과 본회는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 경북지방경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교류 협약식을 맺고 경찰가족들의 체력증진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교류 협약식에는 경북지방경찰청 교육계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병철 청장을 비롯한, 최동해 차장과 각과 담당관이 참석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이석균 회장과 정만진 의장, 이경섭 동국대경주병원장, 천종록 경상병원장을 비롯한 본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단체는 ① 경찰관 건강·체력관리사업 공동추진 ② 경북지방청 소속 직원의 의료 편의시설 제공 ③ 건강 강좌 등 경찰관 직무교육 협조 ④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 공동 개최 ⑤ 기타 상호간의 협의사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의사회와의 협약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앞장서고자 하며, 경찰가족



교류 협약식에서는 경찰관 건강·체력관리사업 공동추진, 경북지방청 소속 직원의 의료 편의시설 제공, 건강 강좌 등 경찰관 직무교육 협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 공동 개최, 기타 상호간의 협의사항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기로 협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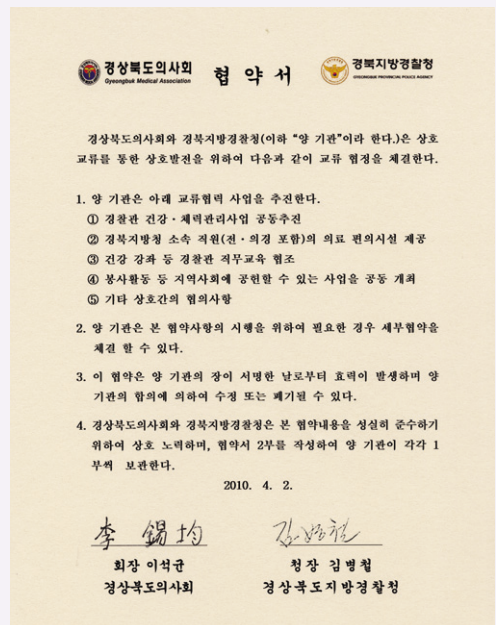
들의 건강과 체력관리사업에 온 힘을 쏟을 것과 건강 강좌 등을 통한 경찰관 직무교육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또한 양 단체간의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겠으며, 경북지방경찰청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 라고 하였다.



김병철 청장은 '경북지방경찰청 모든 직원은 명품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양 단체가 서로 합심해서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하자' 라고 하였다.

교류 협약식 이후 경찰관들의 불규칙적인 업무로 인한 체력 저하를 방지와 경찰관들의 건강과 체력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내 체력증진센터를 마련하여 개소식을 가졌으며, 향후 본회에서는 건강관련 상담 및 강좌등을 지원키로 하는 등 양 기관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협조를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청 가족들의 봄철 건강을 위해 본회에서는 황사마스크 1,000개를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제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은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을 수여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6일까지 공모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학술상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구지역 의과대학 교수님께 외부 심사를 의뢰하였다.

봉사상은 신청회원 지역을 제외한 전현직 시군의사회

장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3월 9일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봉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박일영 간사의 진행으로 조현숙 심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참석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접수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것을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이어 심사위원들의 소개 및 심사기준 설명이 있은 후 접수자들의 주요공적을 주 내용으로하고 의사회 기여도, 공적기간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당 100점(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총 600점 만점) 기준으로 본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제12차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확정하였다.

심사위원회

- 학술상 : 외부심사(대구지역 의과대학 교수)
- 봉사상 : 위원장 조현숙(본회 부회장)
 위원 황석순(포항회장) · 류성훈(구미회장)
 김목환(전, 안동회장) · 배경일(전, 영천회장)
 장유석(경산회장 및 본회 재무이사)
 간사 박일영(본회 기획이사)

2009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지난 3월 6일 오후 6시 호텔에어포트 에메랄드홀에서 2009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주요회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어 박일영 기획이사의 시군의사회 신입회장 소개와 더불어 2009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보고에 대해 이봉구 경주회장으로부터 회보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회장님과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장유석 재무이사의 2009년도 일반회계 (가)결산보고와 각종 특별회계 적립금 (가)결산보고를 상세히 듣고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또한 2010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도 통과시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의사의 날 행사의 개최 방법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과 제59차 대의원총회시 안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군의사회에서 조속한 시일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안전의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수록키로 하고 이석균 회장으로 부터 약품비 절감 대책과 의료산업화 등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2009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경북도내 의사 보건소장 간담회

지난 2010년 3월 5일 오후 7시 인터불고호텔 동보성 중식당에서 경북도내 의사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임원진과 의사 보건소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영 기획이사의 참석자 소개에 이어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며,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 라고 하였으며, 정만진 의장은 '의사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보건소가 되어주길 바라며, 회원간의 소통과 어려운일이 있을때 언제든지 의사회에 요청하면 돕겠다' 라고 하였다.

참석한 보건소장을 대표해 김성수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의사회와 자주 만나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 충분한 정보교환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말을 대신하였으며, 이어 최근 의료현안과 더불어 정보교환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민관합동 워크숍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2010년도 민관합동 워크숍이 지난 3월 9일 오후 1시부터 구미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및 단체 관계자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시책인 재난관리 중점추진사업 협력강화 방안강구와 2010년도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의 주요사업 및 시책설명과 더불어 정보 공유를 통하여 사업공동 추진과 단체별 참여 유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주요행사로써는 2010년도 재난관리 홍보영상물 상영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녹색성장의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워크숍 행사에 앞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네트워크 정회원 및 협력회원 기관과 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대

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암예방의 날 기념 '대구·경북 암정복 2015' 선포식

대구경북지역암센터가 주관하고 대구시·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및 대구 경북 암정복 2015 선포식'이 지난 3월 19일 오전 11시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박재용 대구·경북지역 암정복 위원장과 본회 이석균 회장,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국민 암 예방수칙 소개와 더불어 '암정복 2015 선포식'에서는 올해 수립된 '대구 경북 암정복 2015'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계획을 선포하였으며, 대구·경북 암정복 2015비전낭독에서 이석균 회장과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부회장은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대구·경북지역 암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라



고 비전을 낭독하였다. '대구 경북 암정복 2015'는 지역의 암정복을 위해 2015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수립한 지역 최초의 중장기적 암관리계획이며, 이 계획은 종합적인 암관리를 통한 암 발생, 암 사망의 최소화로 대구·경북 지역의 암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행복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경상북도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역할을 할 '경북행복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3월 30일 오후 3시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천 도의회 의장, 이석균 본회 회장 및 보건·복지단체장 등 관계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관, 임원 구성,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등 재단설립과 관련된 주요안건을 확정, 재단설립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경북행복재단은 복지환경 수준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높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행복재단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언론계·종교계·보건복지 및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3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북행복재단 출범은 금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다.

경북행복재단의 주요기능으로 「사회복지 보건서비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보건 복지시설 및 기관의 전문성 생산성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육성」, 「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구축 및 협력 지원」, 「도 시군 위탁 및 법인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회의 개최

경상북도에서는 201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보고 및 부패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과 민·관 협력방안 협의를 위



하여 제1차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를 지난 3월 24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이삼걸 행정부지사 주재로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직능단체 및 행정기관의 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이 있었으며, 2010년 경상북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보고와 부패Zero, Clean경북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협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과 도시화'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이삼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도내 보건의료단체장 등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등이 열렸으며, 건강증진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보건의료인의 다짐을 채택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기념식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장·치과의사회장·간호사회장·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상견례를 겸한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회무에 협조키로 하였다.

동국의대 임현술 교수 근정포장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임현술 교수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7일 개최한 '제38회 보건의 날 및 제62회 세계보건의 날' 을 맞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임현술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후, 영국 케임브리지 인명센터(IBC), 미국인명연구소(ABI) 등 3대 세계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것은 물론 AI(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증, 쯔쯔가무시증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역학조사관 자문위원으로 집단발병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에 기여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동국대경주병원 나득영 교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공동연구자로 등재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교수 주도로 시행한 연구로 세계 임상저널중 최고수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0년 3월 15일자에 실렸으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심장&혈관내과 나

득영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이름이 올랐으며, 약물방출그물망 삽입 후 두가지 항혈소판제의 병합요법 기간에 대한 연구로 미국심장학회 발표와 동시에 게재되었다.

이재욱 회원(안동병원 호흡기내과) 결핵예방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안동병원 호흡기내과 이재욱 과장이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재욱 과장은 지난 2007년부터 1,511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공헌한 공로를 높이 것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3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 28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공자로 표창을 수상했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공자 선정 한동선 병원장(좌), 강병직 병원장(우) 표창



노동부가 제10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4월 1일~7일)을 맞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

자 21명을 포상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선 병원장과 강병직 김천제일병원장 등 8명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특히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선 병원장은 대통령 표창을,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강병직 병원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이성근 회원(포항, 이성근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지역의원(도의원)에 출마 예정이다.

이성근 회원은 1976년생으로 계명 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젊은 패기를 기반으로 창조과학회원, 가톨릭의사회원, 포항로타리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417-1 소재 이성근의원을 개설해 오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중근 회원(구미, 탐정형외과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지역의원(도의원)에 출마 예정이다.

최중근 회원은 1961년생으로 순천향의대를 졸업하고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구미시 양포동발전협의회회장, 양포동체육회 부회장, 명예소방대장, 구미시 경실련 재정위원등으로 활성하고 있으며, 구미시 옥계동 639-4 소재 탐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오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지역봉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제1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은 (주)동원약품의 후원으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중에서 학술상은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제외)으로, 봉사상은 의사단체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주민과 관련기관·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해 심사후 선정하여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상패와 부상(각 금1냥)이 주어진다.



좌(2명) : 이종규 회원 가족, 우 : 이정호 교수



이 정 호 교수
동국의대 신장내과

학술상 수상소감

연구요지

말기 신부전 환자는 국내에서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지투석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최근 초기 신대체 요법으로서의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막투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생체 부적합한 투석액의 지속적인 복강내 노출로 인해 생기는 후기당화산물은 복막투과도를 증가시켜 결국 복막투석 중단을 초래한다. 후기당화산물로 인한 복막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했지만 대부분 효과가 미약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OPB-9195, 항산화제 및 aminoguanidine 등의 약제를 사용하여 후기당화산물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연구되었고 성공적인 결과도 얻었지만, 기존에 생성되어 복막에 축적된 후기당화산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 개발된 alagebium은 이미 생성된 후기당화산물에도 분해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복막투석 동물모델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향후 복막투석을 장기간 시행하기 위한 투석막으로서의 복막의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소감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베풀어 주신 심사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회원들도 많은데 제가 받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이 앞서지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복막 손상의 기전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동안 많은 성과와 영예도 얻었습니다.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여러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고, 특히 동국대병원 신장내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수상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종 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

봉사상 수상소감

언제나 부끄럽기만 했는데...

을씨년스럽게 셋바람이 이는 쓸쓸한 저녁이면 바닷가 부락은 인적이 없다. 못내 야속할 정도로 고약한 지난겨울 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했을 터... 간간이 쿨룩거리는 기침소리가 해안도로까지 들린다. 긴 여운을 남기는 기침소리가 못내 귀에 거슬린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바에야 부지런히 해안도로를 빠져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불을 걷어내니 집쥐가 짹짹 거리며 방안을 휘젓는다. 개구리를 따라서 누룩땀도 또아리를 틀었다. 질척거리던 물이 빠지니 벽지가 들고 일어난다.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서 퀴퀴한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청진기는 수마에 할퀴어진 마음을 달래기에는 너무도 무기력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포성이 은은히 들리고 화약 냄새가 배어든 옷깃을 여밀어 청진기를 대어 보기도

수상자에게 듣는다

했다. 총상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너무도 당당해서 주눅이 들었던 그날이 아직도 꿈결에서 생생하게 전해진다. 공포와 기아에서 의연했던 소박한 이방인들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보다 오늘의 일그러진 표정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 창피하기만 했다.

밤이면 미친개들이 울부짖었다. 스콜이 지나간 후면 전갈과 초록 뱀은 집안을 은신처로 사람과 동거를 했다. 누가 주인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들의 손에 쥐어준 한 알의 아스피린이 너무도 하잘것없어서 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청진기 앞에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침착해지던 그 일본 할머니에게 나는 한없이 미안하기만 했다. 겨우 보잘것없는 안정제 한 알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지구촌에는 많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티나 칠레의 지진은 새로운 지구촌의 한 획을 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흙먼지와 땀방울로 범벅이 된 많은 자랑스러운 의료인들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뒷맛이 개운치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고 머쓱해하곤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무리를 생각할 수는 없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미완성이고 불량품이기만 했습니다. 내세울만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추천해주신 분과 선정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상 · 봉사상 심사평

| 학술상 |

학술상 심사위원장 이경섭
본회 부회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제1회 경상북도의회 학술상은 이석균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종합병원이 많이 있고 여기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학구 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나은 논문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한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학술상이라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내심 걱정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여러 회원님의 협조 덕분에 여러 편의 논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저도 여러 학회에서 심사를 많이 해 보았지만 항상 후유증들이 있음을 경험한 지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할까를 이동석 학술이사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은 학회와 무관한 외부 심사 위원들에게 전적으로 심사를 맡기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먼저 엄격한 내부적인 심사 규정을 만들어 대구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저명한 교수님들께 엄정한 심사를 부탁 드려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런 문제점들은 추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 작업을 통해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경상북도의회 학술상을 수상하게 된 동국의대 신장내과 이정호 교수님께 축하를 보냅니다.

| 봉사상 |

봉사상 심사위원장 조현숙
본회 부회장, 계림내과의원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시고 입적하신 법정스님이 장안의 화제가 된 요즘, 경상북도의회 봉사상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위원장으로써 소감을 피력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봉사를 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홍보가 덜 되어 총 세분의 후보자가 등록되었습니다. 봉사상 심사기준은 공적심사와 의사회기여도 및 공적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배점하였으며 다섯분의 심사위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결과 봉사경력 이 좀 더 길고 국내외에 걸쳐 다방면으로 봉사하신 분이 봉사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개미핥바퀴 돌 듯 현실세계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에 반해 본업인 의사생활과 함께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국경 너머 먼나라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가진 것을 베푸는 그 마음에 우리 심사위원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무소유의 정신과 봉사의 정신이 우리 의사사회에 불꽃처럼 일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후원해 주신 동원약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본회 제32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가 오는 2010년 5월 15일(토) ~ 5월 16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오룡호텔에서 개최되오니 회원 및 가족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의사의 날 행사 세부계획

- 1) 춘계학술대회 : 5월 15일(토) 14:00 ~ 5월 16일(일) 12:00, 오운홀
- 2) 친선의밤행사 : 5월 15일(토) 19:00, 오운홀
- 3) 경북의학제 : 5월 16일(일) 13:00, 야외정원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

본회에서는 회원연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회원들의 임상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로 준비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춘계학술대회 세부사항 안내

- 1) 일 시 : 2010년 5월 15일(토) ~ 5월 16일(일)
- 2) 장 소 : 경주오룡호텔 오운홀
- 3)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12평점(토 6평점, 일 6평점)
- 4) 등 록 비 : 사전 30,000원, 현장 40,000원 / 본회회원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 팝업창 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오니 회원님께서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4월 21일(수) ~ 5월 12일(수)

프로그램

| 5월 15일 (토) |

| 구 분 | 연 제 | 연 자 | 소 속 |
|-----|---------------------|-------|-------------------|
| | 회장인사 | 이 석 균 | 경상북도의사회장 |
| 1강의 | 알레르기 천식과 비염의 최신지견 | 정 해 리 | 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
| 2강의 | 만성 질환에서의 보완통합의학의 적용 | 정 승 필 | 영남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
| 3강의 | A형 간염과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라인 | 김 신 우 | 경북의대 감염내과 교수 |
| | Coffee Break | | |
| 4강의 | 투자자의 눈으로 본 세상의 변화 | 최 영 준 | 에셋플러스증권 이사 |
| 5강의 | 의료기관에서의 노무관리 | 장 인 환 | 노무법인 남경 |
| 6강의 | 의료현안 | 경 만 호 | 대한의사협회장 |

| 5월 16일 (일) |

| | | | |
|-----|---------------------------|-------|---------------|
| 1강의 | 당뇨병 치료의 해법 | 시 청 각 | |
| 2강의 | TPI 개념과 실제요법(근막통 증후군의 치료) | 류 기 형 | 동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
| 3강의 | 외래에서 흔한 우하복부 통증에서의 초음파 검사 | 권 중 혁 | 계명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
| 4강의 | 임상에서 흔히보는 수면질환의 평가 및 치료 | 서 완 석 | 영남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
| 5강의 | 외래에서 흔히보는 안과질환 | 김 형 준 | 대구가톨릭의대 안과 교수 |
| 6강의 | 만성간질환 치료의 해법 | 시 청 각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가인상 재원 확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약품비 절감!)

대한의사협회

수가인상 재원 확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 4%만 줄이시면 됩니다.

2009년 11월 25일 제21차 건강심 회의에서 2010년 수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의원 3%, 병원 1.4% 인상되며 의원과 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수가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조건으로 의원과 병원의 노력에 의해 2010년 약품비를 4,000억 원 절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2011년 수가에 이 절감 액수의 절반을 반영하여 가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 약품비 절감에 대한 평가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절감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의원과 병원이 3월부터 8월까지 2000억 원만 절감하면 됩니다.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이 13% 정도이므로 이를 9% 이하로 조정하면 됩니다. 의원에서는 처방 건당 평균 12,862원의 약품비 중 459원을 절감하면 되며, 평균처방일수를 적용하면 1일 1,613원의 약품비 중 58원을 절감하면 됩니다(건당 7.5일). 또는 금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처방하는 약품비를 4% 이상만 줄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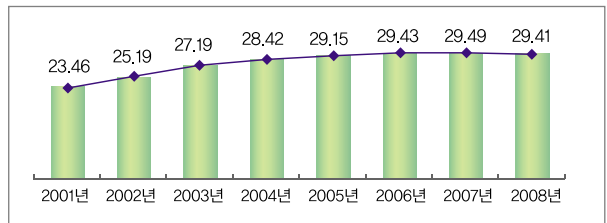
이번 약품비 절감 액수의 절반은 우리 회원들에게 수가 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동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나 아니면 다른 회원이 하겠지 보다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절감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2010년 3월부터 8월이 되어야겠습니다.

▶ 약품비 증가 속도!! 심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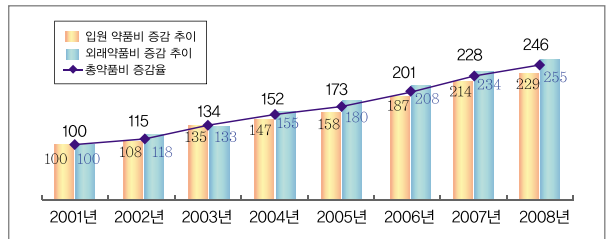
약품비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이는 결국 국민과 요양기관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금번 수가결정 전부터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절감을 하든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금년부터 약품비 절감을 자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약품비 절감에 수동적 대상이 되어 통제와 견제만

을 받기 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함으로써 왜곡된 요양급여비용을 바로 잡아 향후 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함입니다.

※ 연도별 총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 비중(%)



※ 연도별 총 약품비 증감 추이(%)



약품비 절감! 이렇게 하면 됩니다

- 1 동일성분, 동등한 효능의 의약품이라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우수한 의약품 사용도 검토해 주십시오.
- 2 환자 진료시 환자에게 처방되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복용하지 않은 잔여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3 환자가 요구한다 하여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마시고, 환자에게는 필요한 정도의 의약품만 처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4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약품비 사용율을 확인해 주십시오(심평원 홈페이지, 청구프로그램 상 통계 활용)
- 5 의협 발송 우편물이나 의협신문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 6 심평원에서 약품비 증감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월~4월)
- 7 반모임 등 주변 의사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주십시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2010년 4월 1일 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발급의무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사업자(내국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 |
|---------|---|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 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 비 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위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의 발급 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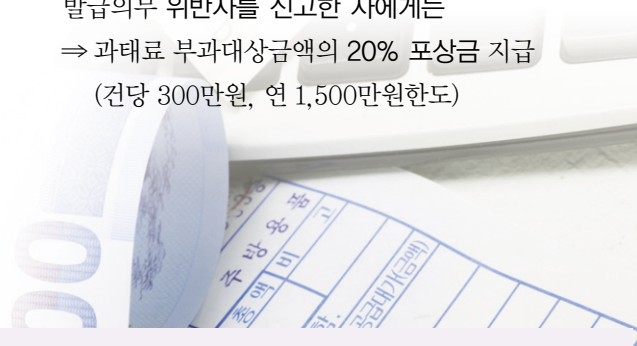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조세법 처벌법 제15조). 단, 해당거래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한도)



「기록 열람 등의 요건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복지부 FAQ

기록열람 (제13조의2)

Q.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 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A.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

(친권자)을 기록·열람의 주체로 보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Q.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A.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 ①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 ②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 동의서 : 환자본인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 위임장 : 수임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Q.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A.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

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Q.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A. '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Q.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변경이 가능한지?

A.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기록 발급범위 및 제증명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Q.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A.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



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 될 것으로 사료됨.

Q. 기존대로 대리인에게 환자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A. 열람 요청자가 시행규칙 상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 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등이 인감증명서 등 이외 서류 를 요구하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Q.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Q.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

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3자에게 재위임 함에 따른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

조에 위반됨.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것은 가능

Q. 기 발행된 진단서·소견서 사본 발급·열람이 아닌 최초 발급의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여부

A.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즉,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소견기록 등 제증명서의 열람·사본교부에 관한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단서·소견서 발행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의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될 것임.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급여 비용고지 (제42조의2)

Q. '책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A.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함.

- 예 시 :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Q.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A.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의료기관의 구조특성 및 환자의 예상 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가 가장 대표적일 것임.

Q.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

-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도 비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 선택진료비용도 비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A. 의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의미함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택진료비"는 비급여항목이므로 고지대상에 해당함

Q.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용등을 올릴 때, 로그인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 해도 되는지?

A.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 했을때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하는 것은 환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되므로 의료법 제45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안내

2010년 1월 28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과 아울러 비급여 고지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 비급여 대상(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총액 표기 가능)

2) 제증명수수료비용 게시의무

-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3) 홈페이지상 표시의무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상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표시

4) 의료보수 신고의무 삭제

- 의료기관 개설신고(제25조), 개설허가(제27조) 시 “의료보수를 적은 표” 제출의무 삭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주요내용

1) 목 적

- 개정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른 고지·게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 및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2)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 ①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 ② 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③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
- 선택진료비는 고지 대상에 포함

3)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별 열거 가능하나, 환자가 알기 쉬운 포괄수가 형태 표기 권장(이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함
- 다만 치료재료,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범위 설정 표기 가능(이 경우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 폭 줄여야 함)

4)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가능
- 환자대기실, 접수창구,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 납창구 등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발적인 비급여 가격정보 게시 가능

5) 기타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항목 등 변경 시 변경된 날짜 기재하고 변경 내용 표시
-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 수수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함.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5월 1일부터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각 진료과별 샘플을 안내하오니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표준약관」개정

■ 종전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이 현행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기관 표준약관」개정내용 안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거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5호신설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자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개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아니 됨(법 제20조제2항).

■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법 제91조).

의료폐기물 처리 지도점검 실시

■ 환경부에서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수술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출한 인체, 태반, 양수 등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버리거나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밝혔는데, 지도점검에서는 태아조직, 양수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 등과 혼합보관 여부, 조직물류폐기물을 상차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적정보관(보관용기, 보관방법, 보관기간 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

원외처방전 발행 관련 협조 요청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으로만 구분되고 있어 원외처방시 산재보험과 후유증상 구분이 표시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외처방전 발행방법 등을 안내

보청기 올바른 구입(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 최근 보청기 유통시, 보청기 사용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보청기를 구매한다는 사항이 확인되어, “보청기 구매(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

- 1) 소비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시에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상병리사 및 청각(능)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개인의 특성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여야함
- 2) 정기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점검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보청기의 성능을 점검받을 것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복지부는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과용 패드(surgical pad)의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2010년 2월 1일자로 공포

■ 금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규정 적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

약제비 등의 비용부담 주체 관련 안내

■ 새로운 처방전 발행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및 비용 부담 주체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 조제하였으나 부작용 발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약제 변경여부 등을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기처방 의약품 교체 가능여부 및 처방방법 : 처방받아 환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은 환자로부터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 교체를 해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약제비 비용부담 주체 : 부작용 발현 등 불가피하게 약제처방의 변경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새롭게 발행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임. 단, 환자의 복용불편은 불가피하게 약제처방을 변경해야 할 사유로 보기 어려움.

진료비 정산에 대한 안내

■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제도는 사전에 환자와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적당한 시간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과 환자가 맺은 사적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비용은 진료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에 진료예약일 기준으로 진료비를 선납하였더라도 진료 실시된 시점에 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등과 같이 본인부담이 변화될 시에는 환자의 요구 없이도 정산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명칭변경 :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급여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시설급여(단기보호를 포함한다)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 변경 : 월 15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급여 변경

■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등

기사성 의료광고 등 의료법 관련규정 준수

■ 최근 신문·인터넷매체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기사형태 광고가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는 바,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함께 표현하는 것을 제외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신문·잡지·인터넷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인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사전심의 후 심의필을 득하여 광고를 진행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0. 3. 4 시행)하였음.

■ 이에 기초수급(신청)자가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정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과 1~3급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안내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인

단 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읍면동)에 제출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 안내

■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운송 중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운반차량 및 차량 내 저장시설 요건, 운반 업무의 위·수탁, 운반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마련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내원시 사안에 따라 실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에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수급권을 제한 당한 수진자(가입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
- 이에 따라 수진질서를 확립하고 수진자의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준수하여「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에 근거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의협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인권과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여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개정이 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가 2008년 9월 2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심의중

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 안내

- 잔여백신 처리 방침
 - ▶ (폐기)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 의료기관은 사용 후 남은 백신을 관할 보건소에 반납
- 녹십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백신을 수거하여 폐기

- ▶ (비축) 보건소의 잔여 백신
 -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백신은 소유행 대비 비축
 - '10~'11년도 절기동안 일부 집단 대상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 활용 가능
 - ※ 보건소에서는 비축분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철저

■ 잔여 백신 처리 기안(안)

- ▶ 의료기관 백신 반납 : 2010. 4. 1 ~ 4. 15
-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김윤주(02-380-2919)

라바스타정 등 5개 품목 급여정지 약제

- 심평원으로부터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를 미제출한 업소 및 해당 품목인 ‘라바스타정 등 5개 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되었음을 안내
- 해당품목

| 급여중지일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비고 |
|---------------|-----------|-------|-----------|----------------|
| 2010. 03. 21. | 658200220 | 라바스타정 | (주)제이알피 | 생동성 시험 계획서 미제출 |
| | 673500500 | 크라마신정 | 한국엠알비(주) | |
| | 699903120 | 타루살캡셀 | 한국마이팜 제약 | |
| | 699903110 | 판프레스정 | 한국마이팜 제약 | |
| 2010. 03. 30. | 696600390 | 아나펜정 | 일양바이오팜(주) | |

급성기환자의 진료지침에 대한 안내

- 자보분쟁심의회에서는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2008. 8. 28)의 기준 및 금액을 적용하되, 일단 수상 초기 급성기환자는 자보진료수가기준 제7장 이학요법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며, 2~3주 이상 치료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한 건에 대해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입장을 회신함을 안내

신임 시·군의회사회장에 듣는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황 석 순 포항시의사회장

안녕하십니까? 신임 포항시의사회장 황석순 인사드립니다.
포항시의사회는 경상북도의회에서 회원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회무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사회와 경북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박한 의료현실로 인해 회원들이 의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만 강요하는 의사회가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의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봉 구 경주시의사회장

전통적으로 높은 단결력과 튼튼한 조직력을 갖춘 경주시의사회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암울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 넣어, 경주시의사회란 하나의 톱니바퀴가 순조롭고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외된 회원이 없이 같은 배를 탄 동지의식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개원의와의 대화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로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겠습니다.



김 광 인 안동시의사회장

지금 의료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외우내환이란 말이 딱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길은 서로 단합하고 뭉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며 또한 빛나가는 형제는 바로 잡아주는 한가족 같은 의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어두워져 가는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공생의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류 성 훈 구미시의사회장

안녕하십니까 향후 2년간 구미시의사회를 맡게 된 류성훈입니다.
이때까지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 전통은 잘 계승 발전시키면서 선후배들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역의사회에 능동적인 의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회의 지역적, 사회적 의무를 생각하며 실천한다면 존경받는 의사, 신뢰받는 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미시의사회의 위상을 다음 세가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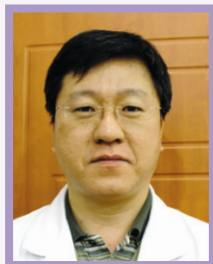
경상북도의사회에서는 존재감있는 구미시의사회로, 구미시민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구미시의사회로, 마지막으로 구미시의사회원에게는 그들이 되는 구미시의사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 길 영천시의사회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사회장 이동길입니다.

지역 의사회장직이 개인적으로 영광된 자리입니다만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룬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회가 자리매김 할수 있는 길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회원의 단결과 회원 상호간의 소통,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의사상 확립을 강조하시는 도의사회장님의 뜻을 받드는 지역 회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재 흠 의성군의사회장

초고령 사회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의성군은 의료기관 밀집 지역으로써 진료상의 특이성을 갖고 있으며 점차 진료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온 우리 의성군은 변화된 다양성과 개성으로 인해 흩어진 관심사를 향후 2년간 모두가 동참하는 의사회로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영 규 영덕군의사회장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번에 영덕군의사회 회장을 맡게된 최영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의사회에서 큰 임무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의사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길 기원합니다.



노 영 철 예천군의사회장

먼저 전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실이 아무리 왜곡되고 빼돌어져도 초심을 잊지말고 반듯한 의사로서 손님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약속 하리라 믿습니다. 약화는 절대 양화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소통합시다.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신임 회장에 황석순 회원 선출



포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목화예식장에서 2010년도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황석순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200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2010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이의없이 통과시켰으며, 포항시의사회 회장 및 감사 선거의 후보자등록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장 후보에 황석순(황석순내과의원) 회원과 감사 후보에 성승모(시티병원) 홍성철(홍성철성형외과의원) 회원에 대해 박수로써 선출하고 새로 구성된 임원들의 인준을 거치는 등 2010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웃돕기 성금전달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 포항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지킴이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김보미 주민생활지원국장, 의사회에서는 김광만 전회장, 양숙경 전부회장, 신명준 전기획이사가 참석하였다.

안전지킴이 집 현판식

포항시의사회와 안전지킴이운동본부는 2월 22일 오후 1시 신명준외과의원에서 김광만 전회장과 임원과 포항시교육청 이동장 학무국장 및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피난처, 비상구 역할의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집 현판식'을 가졌다.



안전지킴이집 참여의료기관(23개소)

권영철정형외과의원, 김지홍정형외과의원, 남동수신경외과의원, 등내과정형외과의원, 박응원미모아·소아청소년과의원, 북부정형외과의원, 선린재활요양병원, 성모내과의원, 성모정형외과의원, 신명준외과의원, 신세계연합의원, 신정형외과의원, 이달우신경정신과의원, 이원기외과의원, 장태식비뇨기과의원, 최영관외과의원, 최창필내과의원, 포항성심요양병원, 포항토마토정형외과의원, 하산외과의원, 한마음의원, 해맞이연합의원, ABC김광우소아과의원

역대회장 및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 우미향에서 포항시의사회 역대회장 및 원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철·김광만·김형우·변승열·신은식·오세진·이원기·하영호 역대회장과 박무근 원로회원, 황석순 회장, 신명준·서동권·정숙형 부회장, 송준화 기획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황석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회 회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역대회장과 원로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제14회 포항시의사회의 날 행사 계획과 제4회 포항시의사회원 친선골프대회 안내가 있는 후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4회 포항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 송라제니스골프장에서 제4회 포항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에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건강증진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



경주시의사회

신임 회장에 이봉구 회원 선출

경주시의사회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경주힐튼호텔 그랜



드볼룸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이봉구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황병욱 회장과 본회 이석균 회장, 백상승 시장, 김미경 보건소장 등 내빈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백승인 고문의 의사윤리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황병욱 회장의 인사말과 본회 이석균 회장의 축사, 백상승 시장의 축사에 이어 대외사상이 있었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무 및 재무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키고 2010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임원선출에서는 회장에 이봉구 회원(이피부과의원)과 감사에 강준오(강남비뇨기과의원), 이광현(동국대경주병원) 회원을 선출 하는 등 2010년도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강지역 회원 모임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우미향에서 안강지역 회원모임이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안강지역 회원(정해건·이종철·이정걸·곽효섭·박재기·김경렬·박성훈·서경원 원장)이 모인 가운데 이봉구 회장은 ‘앞으로 지역회원들과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자주 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며 의료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2010년도 제1차 확대이사회 개최



지난 3월 9일 오후 7시 2010년도 제1차 확대이사회가 갑포별미횿집에서 있었다.

지역이사를 포함하여 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이봉구 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의료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선임장(감사), 위촉장(고문), 임명장(이사) 수여가 있었다.

김천시의사회

임마누엘 영육아원 방문 난방비 전달



김천시 교동에 소재한 임마누엘 영육아원을 방문하여 겨울철 난방비로 700만원어치의 주유권과 시설 내 중고생들의 신학기 교재비를 전달했다.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김천시의사회는 지난 2월 25일 오후 7시 옥류관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이경엽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약품비 절감 대책 관련하여 대의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총회에서는 2009년도 결산보고 62,227,048원을 이익없이 통과시키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장단에 위임하는 등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안동시의사회

신임 회장에 김광인 회원 선출



안동시의사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신라웨딩홀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광인(안동제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목환 회장을 비롯한 이석균 본회 회장, 손장락·정창근·최종두·최유근 원로회원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목환 회장의 인사와 이석균 본회 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은 이익없이 받아들이고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67,144원 증액된 52,698,2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임원선출에서는 회장에 김광인 회원, 부회장 박무영·배선근, 감사에 김목환 회원을 선출하는 등 2009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제1차 이사회 및 신년교례회

지난 2월 18(목) 저녁 7시 솔밭한정식에서 임원진과 각반 반장, 원로회원(손장락, 정창근, 최종두, 최유근)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임원진과의 상견례 후 신년을 맞아 윷놀이로 선후배, 동료간 친목을 도모하였다.



구미시의사회

신임 회장에 류성훈 회원 선출



구미시의사회는 지난 2월 25일 오후 7시 30분 동강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류성훈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이경수 회장을 비롯한 본회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09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와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신임회장은 류성훈 회원(류외과의원)을 선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구미시 보건의약관계자 간담회 개최

구미시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 대책노고에 대한 감사 및 2010년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교환과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역할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 30분 동광일당에서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구 임원 회무인수인계

지난 3월 4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에서 신구 회장 회무인수인계를 개최하였으며, 인수인계 목록으로는 현금명세서, 자산(비품)목록, 2010년도 예산서, 서류목록 등이 있었으며, 향후 임기동안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0년 제1차 전체이사회회의 개최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에서 2010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회의

를 개최하고 류성훈 회장의 인사말씀과 앞으로 임기동안 본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여러 이사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반회를 활성화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각종 동호회를 결성을 통한 효율적인 전체 반회도 아낌없이 지원해 줄것을 약속하였다.

약품비 절감 대책관련 전체 반회의 개최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약품비 대책에 관한 전체 반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수가결정 경과' 홍보 책자를 참고로 하여 회원들의 심도높은 반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선의료기관에서 약품비 절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는 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영주시의사회

2010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영주시의사회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우미회식당에서 2010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최경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김주영 영주시장, 임무석 보건소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렬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 본회 이석균 회장과 김주영 영주시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의사회 회무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영천시의사회

신임 회장에 이동길 회원 선출

영천시의사회는 지난 2010년 2월 18일 오후 7시 고궁한정식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이동길 회



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배경일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구현진 보건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본회 이석균 회장은 주요회무보고와 2010년 수가결정과 관련한 약품비 절감대책안과 원격의료 등 최근의료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정만진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영천시의사회 2009년도 회무보고와 결산은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으며, 금년도 사업계획 확정과 더불어 신입회장에 이동길 회원(이동길내과의원)을 선출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전임회장 및 원로회원과 간담회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삼합식당에서 신임 이동길 회장단과 전임회장 및 원로회원들과의 오찬모임을 있었다.
 이날 오찬에서는 선후배 의사들이 점심을 함께 한 후 이동길 회장의 인사와 신임회장단 소개에 이어 원로선배님들이 한 분씩 격려의 말씀이 있는 후, 최근 의료현안과 유익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앞으로 영천의사회를 위하여 선후배가 조화를 이루며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친선골프대회 개최



지난 3월 7일 인터불고 CC에서 영천시의사회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문경시의사회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 일식당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봉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서도 많이 참석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 라고 하였으며, 이어 이석균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최근 의료현안 논의와 더불어 회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경산시의사회

전북 군산시의사회와 친선골프대회 개최

지난 4월 11일 전북 군산시의사회와 군산CC에서 친목도모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1회 경산·군산 친선골프대회를 열고 의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활성화에 뜻을 같이하였으며, 매해

번갈아 주최하기로 하였다.

43명의 경산시·군산시 의사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 우승은 최경태 회원(현대외과의원)이 차지했으며 김진업 회원(옥산삼성의원)이 준우승을 했다.

이현춘 회원(대경비뇨기과의원)이 3등을 기록하여 경산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1~3등까지 휩쓸었으며, 골프대회 이후 고장의 특산물을 주고받고 2011년 경산시의사회가 주최하게 될 군산·경산 친산골프대회를 기약했다.



영덕군의사회

신임 회장에 최영규 회원 선출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강남영덕대계식당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최영규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예호열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김병만 원로회원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호열 회장과 본회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과 더불어 의협의약품비 절감 대책에 대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2009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는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회장 선출에서는 최영규 회원(신세계의원)을 선출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고령군의사회

2010년도 정기총회 성료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 사가이식당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최재진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백두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금년 회무에도 적극 협조에 줄것을 당부하는 등 2010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칠곡군의사회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7일 오후 7시 독도회식당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용성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최형석 원로회원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성 회장과 본회 이석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9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2010년 수가결정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4,000억원 절감에 대한 설명회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울진군의사회

2010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지난 1월 28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논의와 더불어 지역 유관과의 유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의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의사 회비를 연간 15만원으로 책정하는 것과 더불어 의협과 경북의사회의 전달사항 등이 있었다.

정재욱 회원 환송회



지난 2월 25일 오후 7시 울진군 후포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맡아서 성심

껏 진료를 해온 정재욱 회원의 환송회가 있었다. 멀리 울진읍내를 비롯한, 아쉬운 마음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정재욱 회원에게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 울진군의사회의 가장 원로이신 전기영 회원께서 울진군의사회의 이름으로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선린병원

파킨슨병 공개강좌

선린병원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 1층 강당에서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아 파킨슨병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선린병원 신경과 장상섭 과장이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좌 후에는 파킨슨병

및 치매 관련 의료상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선린병원 신경과는 포항시 북구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치매검진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성모병원

박애실천·국위선양 필리핀 봉사활동



포항성모병원이 병원이념실천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간 필리핀으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단은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필리핀 마닐라 외각 빈민지역에서 약 500여명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해마다 찾아가는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멀리 동남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대아가족과 MOU 체결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지난 1월 21일 경북일보 회의실에서 대아가족과 포항세명기독병원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대아가족과 세명기독병원은 포항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 지역발전 기여에 서로가 보탬이 되자고 밝혔다.

종합건강증진센터 첫삽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종합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한다. 총 면적 1천821㎡(5만5천여평)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종합건강증진센터와 일반검진실, 특수검진실, 내시경센터가 들어선다.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난 2월 16일 착공,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세명기독병원은 종합건강증진센터 신축과 함께, 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검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128채널MDCT도 도입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과대학 의대생 국시 전원 합격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과대학(학장 심재철)은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 제74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의학과 4학년 재학생 55명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제74회 의사국가시험의 전국 평균 합격률은 92.9%로서 지난해의 93.6%에서 0.7% 하락했으나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학년 재학생 100%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동국대를 비롯한 4·5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 개최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강당에서 2010년도 개원의 연수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물반응의 피부발진(서무규 교수), ▲폐결절 감별진단(이영현 교수), ▲조기위암진단과 치료(박정배 교수), ▲간기능검사의 해석(김강 교수)의 강의를 있었다. 이번 교육에는 동국대병원 교육연구부에서 초밥을 식사로 제공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여 참석한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QI경진대회 개최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QI&감염관리 주간의 날로 정하고 손씻기 체험, 패러디 포스터 전시, QI 경진대회 및 외부 학회 포스터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1월 28일(목) 병원 1층 강당에서 실시된 QI경진대회는 총 15팀이 참가해 각자 1년 동안 준비한 자료를 유감없이 발표했으며, 그 중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최우수상은 63병동의 “치료내시경 시술환자의 사전 정보제공으로 환자의 불안감 감소와 만족도 향상”, 우수상은 내과계 중환자실의 “장비 이용도를 높이자”와 수술실의 “내시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진료재료 비용 절감을 위한 활동”, 장려상은 응급의학과와 “차별화된 간호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응급실 재이용률을 높이자”와 83병동의 “다빈도 질환별 입원내문 개발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이 수상했으며 포스터 우수상에는 외과계 중환자팀의 “손씻기 이행을 향상으로 UTI발생률을 줄이자”가 차지하였다.

이날 QI위원장인 정호근실장은 QI경진대회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모색해 내외부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며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팀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국대학교병원 인사(2010년 3월 1일자)단행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3월 1일 교직원 인사가 단행되었다. 인사에 앞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008년 포항병원과의 통합으로 초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 유지 및 병원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며 19명의 직원들이 2월 28일자로 퇴직하였다. 3월 1일자 인사는 임상교원 3명, 신규임용 12명, 정식임용 3명, 직급승진 34명, 보직 14명, 면직 9명, 전보 4명, 복직 1명

분회 및 병원소식

총 80명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특히, 하위직 승진, 인사 적체 해소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효율성, 생산성, 조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발령했다.

마아병원 협력약정체결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마아병원은 지역주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협약내용은 의학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감사의뢰 및 회신, 병원 홍보 상호지원, 진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경섭 병원장은 “마아병원과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환자에게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양 병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무료진료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불교회(회장 이관)는 지난 3월 28일 경주시 외동읍 외국인근로자 쉼터에서 외동읍청년연합회의 후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고 진료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 진료에는 무구스님을 비롯하여 이관(산업의학과), 최혜숙(내과) 교수 등 진료봉사

단 회원 10명이 참석하였고, 3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이 진료소를 방문하였다.

한편 불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봉사단(단장, 내과 최혜숙)을 신설하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외동읍 외국인근로자 쉼터에서 무료 진료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안동병원

다문화 가정 새댁들, 친정부모와 의료관광 실시



안동병원을 비롯해 의료기관, 여행사, 제약업체, 약초 생산자 대표 등 13개 단체가 다문화 가정의 친정가족들을 초대해 건강검진과 지역문화관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문화가정 헬스투어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3가족 6명이 참가해 건강검진을 받고 전통문화체험과 사돈댁 가족 및 친지들과 교분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병원 헬스투어는 낙동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의료시설과 고품격 건강검진,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일컫는 안동의 풍부한 문화유산, 낙동강 레프팅, 국립공원 트레킹, 골프 및 레저가 하나의 상품으로 연결된 의료관광상품으로 2002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운영해 오고 있다. '2009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상'에서 의료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의료관광상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다문화 주부 안동병원서 직장생활

안동병원이 여성부와 안동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에 함께한다. 안동지역은 결혼이민자가정이 450여세대 정도 있지만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1일 베트남 출신의 누엔디기우짱(23, 국내 3년 거



주씨를 비롯해 5명이 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교육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다. 안동병원은 이들에게 업무교육과 현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의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은 안동과 구미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안동은 1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일자리 알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원환자를 위한 안동시립합창단 공연



안동시립합창단이 주관한 환자를 위한 특별공연 '행복한 시간으로의 초대(지휘 윤성보)'가 지난 4월 6일 밤 7시부터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입원환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창단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가곡과 대중가요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대중가요를 함께 따라 부르며 아픔도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동병원은 이번 공연을 비롯해 MBC 어린이합창단 공연, 동부교회 힐링 코러스 공연, 등 다양한 음악회 및 공연을 개최해 환자들이 병상의 무료함을 달래고 아픔을 잊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안동성소병원

제3기 안동성소병원 백세대학 입학식



안동성소병원 부설 성소백세대학(학장 박승국 병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 병원 8층 대강당에서 제3기 성소백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경북도내 종합병원으로서는 제일 먼저 경로대학을 개설한 성소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노인문화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3월 경로대학을 개설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4일 명성교회 부설 치악산명성수양관과 제천 청풍문화단지 등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제3기 성소백세대학 125명의 학생들은 1년 2학기 과정을 통해 명사초청 특강과 노래 및 율동, 건강강좌 등 다양한 대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응급뇌혈관특성화센터 지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뇌신경센터는 뇌질환의 예방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해 2008년 9월 개설됐으며 뇌신경중심 전문진료센터로서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과 같은 뇌신경질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진료를 통한 우수한 치료 결과로 지역에서 널리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에서 최초로 머리를 열지 않고 뇌질환을 치료하는 뇌혈관 신경중재술(검사 127건, 시술 26건)을 실시함으로써 수술 후 흉터는 물론 회복기간 역시 단축시켜 뇌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다.

센터 개설 후 뇌신경센터 이용환자 수는 외래 39,000여명, 입원 2,400여명으로 특히나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명이 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결과 최근 복지부가 정하는 중증응급질환별 특성화센터에서 응급뇌혈관특성화센터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산부인과교실 & 부속 구미차병원 산부인과 Live Surgery 개원의 연수강좌 실시



구미차병원은 “제3차 산부인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지난 1월 31일 특별 연수강좌와 잇달아 최신수술요법인 ‘싱글홀 복강경수술’ 시범 시연이 성황리 개최되었다.

구미차병원 이진호 교수 사회로 진행되어 개원가에서 염색체 이상에 대한 산전 유전 상담, 태아 심장초음파학에 대한 최신 지견과 전망, 비정상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에 대한 Management guideline, 요역동학 검사와 실제적 적용, 아울러 최근 부인과 수술에 대한 경향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Single Port Access(SPA)OP.에 대한 Live Surgery등 강의

를 했으며, 대부분의 강좌가 진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학회에 참석한 200여명 정도 개원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0년 이웃사랑 교직원 모금운동 실시



구미차병원은 지난 2월 11일 “2010년 이웃사랑 교직원 모금운동 실시”에 교직원의 참여하여 성금을 모아 지역 주민센터, 복지센터, 고아원 등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쌀 20kg 180포대, 라면 141박스(시가 510만원 상당)를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환우 사회 활성화 위한 문화 공간 열어



구미차병원은 병원 본관층 로비에서 내원객과 입원 환자를 위한 병원내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족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어 향후 병원내의 문화 공간이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차병원 그룹 창립 50주년과 구미차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

는 올해 환자를 위한 첫 시업으로 병마와 싸우는 환자가 보다 밝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복귀시 보다 빠른 적응 환경을 위한 병원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2월 10일 사진동아리인 구미청사회 협찬을 받아 “행복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2월 28일 까지 사진 전시회를 개최 중이며, 2월 16일부터는 문화예술체육 부에 공식 등록된 청소년 지원단체인 청소년문화가족과 함께 “사랑 나눔 도서 기획전”을 2월 27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열었다.

산부인과 김인현교수 싱글포트 복강경 시술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미국등 의료선진국에서도 소수의 병원만 시술하고 있는 싱글포트(단일구멍) 복강경 수술을 대구,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술하여 10례를 성공하여 지역 의료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구미차병원 산부인과 김인현교수는 서울 강남차병원에서 세계적인 최신 수술법 싱글포트(단일구멍) 복강경 수술을 100례이상 성공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 1일부터 구미에서 부인과 각종 종양과 부인암 치료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최신 수술기법을 적용하여 지역 여성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복강경 수술은 배꼽부위에 1~2cm 크기의 구멍을 3~4개 뚫어, 그 통로를 이용하여 내시경의 일종인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과 2개의 수술기구를 삽입해 수술하던 방식을

더 발전시켜, 고도의 술기와 숙련도를 요구하는 싱글포트 복강경 수술은 배꼽부위에 2cm 크기의 구멍을 1개 뚫어 그 안으로 복강경과 최신 수술기구를 이용한 최신 수술기법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몇몇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다.

구미차병원 개원 10주년 새도약 나서

구미차병원 그룹창립 50주년, 구미차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특수분야 전문의를 대거 영입,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구미차병원은 최근 첨단장비인 혈관촬영장치 등 고급의료장비 도입과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왔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내과 3명(순환기, 신장, 내분비내과), 정형외과(인공관절, 관절경전공), 외과(소아외과, 복강경전공), 산부인과2(부인과 종양,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전공),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영입하고 5월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각 1명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영입된 전문의 중 정형외과 이재향 교수는 미국에서 27년 간 인공관절 전문의로 활동했으며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전문의 이미화 교수를 영입, 청소년과 미혼여성에게 특화된 병원, 문턱이 낮은 병원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계획이다.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 지정

최근 복지부로부터 중증외상환자를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중증 외상 특성화 센터는 응급환자 발생시 1시간 이내 신속한 수술과 진료가 가능하고 해당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중증 외상에 의한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또한 119 구급대 등 이송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외상과 같은 응급환자의 이송시간과 진료시간이 현재보다 현저히 단축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회 회무홍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의.사.회



◎ 경산시 소개 _

역사적으로 경산은 삼한시대 압량소국(압독국)의 터전이었으며 경산의 삼성현으로 불리우는 원효대사, 설총선생, 일연선사와 같은 훌륭한 분이 태어난 고장이다. 경산은 또한 임당동 고분군, 조영동 고분군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도시이기도 하다.

1995년 경산시와 군이 통합된 이래 현재 2개읍(하양, 진량), 6개면(외촌,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남천), 7개동(중앙, 동부, 서부1동, 서부2동, 남부, 북부, 중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24만여명의 명실상부한 첨단 산업 단지 및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경산시의사회 소개 _

1) 의사회 연혁 및 의료기관 현황

경산시보건소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개원한 분은 1946년 12월 20일 하양읍에서 회생의원으로 개원한 정태준 회원이다. 이후 1947년 정남수 회원의 자생의원, 1956년 신우영 회원의 부인의원, 1957년 김선복 회원의 중앙의원이 차례대로 개원되었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됨으로써 경

◎ 경산시의사회 역대회장 _

- 1대 정남수(자생의원)
- 2대 정태준(회생의원)
- 3대 박종길(제일의원)
- 4대 배광원(보광의원)
- 5대 김홍웅(대구의원)
- 6대 이규인(이규인산부인과의원, 경산시)
조영철(1993~1994년, 파티마내과의원, 경산군)
- 7대 손병욱(1995~1996년, 손병욱내과의원)
- 8대 이석균(1997~1998년, 청십자연합의원)
- 9대 김우태(1999~2000년, 동산의원)
- 10대 최정규(2001~2002년,
최내과김영상의학과의원)
- 11,12대 장기호(2003~2006년 사랑애의원)
- 13,14대 장유석(2007~현재, 장유석외과의원)

산지역과 하양, 진량, 압량, 자인지역 회원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경산시의사회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회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그리고 이석균 경상북도지사회장님을 비롯하여 114개 개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회원수는 217명(개원 128명, 근무회원 84명, 공보의회원 1명, 휴직 4명)이다.

2) 의사회 활동 및 주요 사업

대내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각종 의료계 현안과 의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각반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의사회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이사회 및 반모임 이외에도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봄철 야유회, 가을 등반대회 및 연말 송년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최근 활동을 보면, 2009년 9월13일 경산인터볼고CC에서 제1회 경산시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숨은 솜씨를 자랑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4월에 군산시의사회와 친목교류 골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9년 12월 10일에는 경산시의사회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려 회원간 우의를 더욱 굳건히 다졌으며, 이 자리에서는 경산시에 이웃사랑 나눔의성금 전달도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경산시 지역기관단체 및 보



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가을 신종플루 대유행시 경산시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를 잘 극복한 바 있다. (총 확진환자수 3,400명, 사망자 없음)

또한 2009년 12월 22일에는 연말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을 방문하여 각각 10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나눔물품을 전달하였다. 그 외 지역국회의원 후원 및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산시장학재단에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리 : 부회장 김종영, 공보이사 윤종수)

▶ 임원명단 : 회장 장유석, 수석부회장 박일영, 부회장 김종영, 기획이사 최경태, 공보이사 윤종수, 보험이사 이우근, 법제이사 이광희, 정책이사 박지순, 정보이사 장재혁, 의무이사 박종원, 감사 이정기·허영구, 고문 이석균·류지훈·손병욱·장기호·조영철·최정규

경산시 주요 문화축제 및 자랑거리 _

1) 자인단오축제

경산자인단오제는 매년 단오날 전후 3일간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에서 펼쳐지는데, 자인면 지역주민들의 고을 수호신인 한장군에게 행하는 유교식 제례이다. 즉 단오절에 한묘제를 올리고 각종 민속연희를 연행하는 방대한 형태의 고을 굿이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오랜기간 동안 행해졌던 제례의식과 총의정신 그리고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독특한 장르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으며 자인면 전체 주민들의 마음이 응집되어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2) 경산갯바위축제

매년 10월이 되면 골짜기마다 수많은 암자와 비경을 간직한 팔공산은 붉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된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기 위해 행사장인 경산시 와촌면 갯바위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2일간 펼쳐진다. 팔공산 정상에서는 갯바위부처님에 대한 차례봉행이 있고 행사장에서는 풍물놀이, 소원풍선날리기, 장승각기퍼포먼스, 소원기원문쓰기, 전통무예시연, 큰북공연, 소원기원합창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연극공연, 갯바위가요제, 산사음악회, 그 외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색다른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해 준다.

3) 경산대추

전국 최대의 주산지인 경산에서 생산하는 경산대추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7권에 경산현의 토산물로 수록된 최초의 대추고장이며, 최고의 맛으로 전국에서 정평이 나 있다.



고령군의사회



우리 고령군의사회는
여든을 훌쩍 넘기신
연세에도 진료에 열정을
발휘하시고 계시는
오학근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는 수는 적지만
아주강한 의사회이다.

◎ 고령군은? _

경상북도 서남쪽에 위치하며 1읍, 7개면(쌍림, 덕곡, 운수, 개진, 우곡, 성산, 다산)으로 이루어져 인구는 해마다 줄어 2001년에 38,000명에서 현재는 약 3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군의 경계는 동쪽은 대구광역시·경상남도 창령군, 남쪽은 경상남도 합천군, 서쪽은 경상남도 거창군, 북쪽은 경상북도 성주군과 각각 접한다. 대구광역시와 가까워 근교농업이 발달하였다. 쌍림면의 딸기, 우곡면의 수박, 성산면의 메론과 참외가 유명하다.

역사적으로는 6가야 중 대가야의 도읍지로 해마다 대가야축제가 4월에 대가야 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대가야 테마파크와 가야금을 발명한 악성 우륵을 기린 우륵박물관도 가볼만한 곳이다.

◎ 의사회 규모 및 연혁 _

고령군내에 병원으로 고령영생병원(조성경 원장, 김기동 진료부장의 5명의 의료진), 대가야요양병원(최현석 원장),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이규찬 과장)이 있다. 고령읍의 의원으로는 오외과의원(오학근 원장), 고령백의원(백두현 원



장), 최내과의원(최재진 원장), 효성연합의원(조준 원장), 하내과의원(하영준 원장), 영남정형외과의원(권순 원장), 경대연합안과의원(심삼도 원장), 신세계의원(김기철 원장), 경북연합의원(이상배 원장), 다산면에 부광외과의원(박재만 원장)가 있다. 고령군보건소 안순기 소장도 의사회 회원이다. 고령군 의사회는 회원 수는 적지만 대신 강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월례모임을 정기 적으로 하고 매월 첫째 일요일에는 골프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고 있다. 아울러 고령군 의사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교육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이농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열악해지는 의료환경을 극복하기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한다.

(정리 : 회장 백두현)

◎ 주요사업 _

- 1) 관내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차상위 세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고령지소와 협력해 건강보험료를 매달 지원해주고 있다.
- 2) 회원전원이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JC 등의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3) 매년 2회 지역신문에 고령군홍보 광고를 게재 하여 의사회 알리기에 힘을 쓰고 있다.
- 4) 매년 대가야 축제 때 무료의료봉사 및 부상자 치료지원.

▣ 임원명단 : 회장 백두현, 총무이사 최재진

고령군의 가볼만 한 곳 _

앞서 언급한 곳 외에 여기서는 쌍림개실마을을 소개 하려한다. 개실마을은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이란 지명답게 봄이면 매화, 목련, 벚꽃이 지천에 핀다. 마을에 서면 나비가 춤추는 모양의 접무봉이 병풍처럼 펼쳐지며 부드러운 곡선의 개울이 마을을 적시며 흘러간다.

개실마을은 영남 사람학파의 중심인물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350년간 살아온 집성촌이다. 무오사화 때 화를 면한 김종직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종가의 대를 이어오고 있다. 5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은 20촌 이내의 친척이어서 그 끈끈함이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다.

점필재 종택은 안채, 사랑채, 고방채는 물론 점필재선생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까지 있어 영남 전통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마을 뒤흘에는 100여 년 된 대숲이 하늘을 찌른다. 서당인 도연재 마루에 앉아 훈장인 동네 어른으로부터 전통예절문화도 배울 수 있다. 봄이 되면 개실마을은 딸기향으로

가득하다. '쌍림딸기'로 유명한 개실마을의 딸기를 직접 밭에 들어가 수확할 수 있다. 큰 딸기, 예쁜 딸기 선발대회 등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전통음식만들기 체험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좋다. 개실 명문종가의 한과를 손으로 고이 빗거나, 돌이서 짙을 지어 밀고 당기며 엿을 만들어 먹는다. 이외에도 떡 만들기, 칼국수 만들기, 두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전문도예가와 함께 하는 도자기 체험, 전통한옥에서의 숙박체험이 가능하며, 사랑채 다원에서 전통한방차를 음미하는 시간도 즐겁다. 동물농장과 싸움소사육장은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마을 뒷산의 화개산 트레킹 코스는 꽃과 함께 하는 화원길이다. 십자봉전망대, 화개산전망대 등 주요 지점마다 정자를 만들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정능수 원장에게 듣는다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장 (의성)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한나라당 경북도당 정책자문위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곧 6.2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정당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다는데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인8표제”가 사상 처음 적용되는 선거입니다. 즉 교육감, 교육위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의사들의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니다.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의 정치 참여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참여의 명분을 개인의 이익 보다는 의료체계의 점진적인 개혁, 국민 건강권의 양적,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을 때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정치란 어떤 것인지요?

정치란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을 말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의의 정치란 궁극적으로 정당을 기반으로 한 국가 권력의 획득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협력과 견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중립은 적을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두 세력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망설인다면, 나중에 승자는 자기를 지원하지 않는 자를 동맹으로 원치 않으며, 패자 또한 중립을 지킨 자에 대해 섭섭한 마음으로 적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편을 지지하여 유리하게 하면 반대편은 불이익을 당해 공격을 하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와 정직을 근본으로 하는 의사들의 정치 참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 의료대란은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들을 뒤로한 채 상처투성이의 의약분업이라는 미봉책을 낳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국



국민들과 교감을 확대하면서
윤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게
정치세력화의 우선적 목표

민들과 교류가 없을 때 심각한 사회적인 댓가를 치를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의료가 정치화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적나라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료 정치에서 의사, 국민, 정부 중에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지금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 보건재정의 적자문제가 정치권에 제기되면서 의료 전문가 보다는 경제 전문가가 나서서 보건재정의 적자를 최소화 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하에 공공의료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적으로 의약분업과 의료정책의 구성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내 의료자본의 양극화 해소, 외국 의료자본의 유치,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민간의료보험 역할 증대, 보건소 중심 예방 관리의 민간이양 방향 선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국민과 괴리된 채 추진되던 중앙중심의 정책을 국민과 밀착하는 지역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지역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과 일상생활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지지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사들의 정치세력화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는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세력화 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국민들은 의료대란을 경험하면서 의료단체를 사회집단들과 격리되어 그들만의 집단, 즉 소통이 없는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비난했습니다. 의사들의 정치참여는 이러한 반의사적인 집단과의 대화를 트는 일이 우선 시급하겠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의료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치권과 밀실교섭을 되풀이 하면 또다시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우를 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국민들과 교감을 확대하면서

윤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게 정치세력화의 우선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 시점에서 의사들의 정치참여는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획득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것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물적,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진료실 내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상대로 한 의료계의 입장표명 및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진료실을 의사 정치세력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벗어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하며, ‘길 다르고 속 다르다’는 이중성이 없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들과 인식이나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수의 친의료계 인사를 만드는 것보다도 1명의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 정치권에서는 여성의 정계 진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 공천에 여성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다행히 우리 의료계에도 과거보다 훨씬 많은 우수한 여성 의료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료인들의 정치 참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의사출신 철학자이자 훌륭한 정치가인 손문 선생님의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 즉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지만, 진정으로 큰 의사는 국가, 나라를 고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가슴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및 정리 : 김재왕 · 김종규 위원)

약값의 진실을 밝힙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신설된 의약품정책위원회로부터
그간 연구한 약품비의 문제점을 들어본다.
(위원장 백승인, 위원 김장희·이봉구·이정기)

약은 대조약(오리지널)과 복제약이 있습니다.

복제약이 대조약 약효의 80~120%가 되면 약효가 거의 같다고 인정하고 생물학적 동등성검사(생동성검사)에 합격시켜주며 이 약들 간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후 2006년까지 복제약이 생동성시험에 통과하면 약값을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상해 주었습니다. 2010. 1. 1 현재 유통 중인 생동성통과 약품 5,435 품목 중 약 75%가 이 기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값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으며 아직도 올라간 약값이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리지널 약값이 1,000원, 복제약값이 100원인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80%가격인 800원으로 둔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부는 왜 약값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올려 주었을까요?

생동성시험을 통과해야 대체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약회사가 5000만원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한 대가로 올려준 것입니다.

만약 의사들이 처방한 1,000원짜리 약을 약사들이 800원짜리로 대체조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하루에 1알을 쓸 때,

정부는 1,000원짜리 약이 800원으로 대체되어 200원이 절감되고

제약회사는 100원짜리 약이 800원이 되었으므로 700원이 남고

약사는 대체조제를 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차액 200원의 30%인 60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고

국민들은 100원짜리 약을 800원에 사먹으니 700원이 더 듭니다.

만약 이약을 하루에 3번, 30일치를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약값으로 9,000원 대신 72,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생동성 시험후 약값 변화 비교 (단위 : 원)

<표1>

| 년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09년 매출액 |
|-------|------|------|------|------|------|------|------|-----------|
| 동아가스터 | 358 | 354 | 354 | 354 | 353 | 353 | 352 | 75억 |
| A약 | 34 | 283 | 283 | 283 | 283 | 283 | 283 | |
| B약 | 57 | 57 | 283 | 283 | 283 | 283 | 283 | |
| C약 | 30 | 273 | 273 | 272 | 272 | 272 | 272 | |
| D약 | 53 | 53 | 258 | 258 | 255 | 255 | 252 | |
| E약 | 59 | 59 | 59 | 252 | 252 | 252 | 252 | |
| F약 | 59 | 252 | 252 | 258 | 252 | 252 | 252 | |
| G약 | 32 | 32 | 32 | 215 | 199 | 199 | 199 | |
| H약 | 30 | 30 | 163 | 163 | 163 | 163 | 163 | |

<표2>

| 년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09년 매출액 |
|----|------|------|------|------|------|------|------|-----------|
| 잔탁 | 506 | 506 | 506 | 505 | 504 | 503 | 502 | 39억 |
| 큐란 | 312 | 309 | 309 | 308 | 307 | 307 | 307 | 224억 |
| A약 | 143 | 143 | 404 | 404 | 404 | | 401 | |
| B약 | 127 | 127 | 126 | 400 | 400 | 400 | 400 | |
| C약 | 142 | 401 | 399 | 399 | 397 | 397 | 394 | |
| D약 | 138 | 389 | 389 | 388 | 385 | 385 | 382 | |
| E약 | 143 | 389 | 389 | 374 | 374 | 374 | 368 | |
| F약 | 133 | 372 | 372 | 368 | 368 | 368 | 368 | |
| G약 | 131 | 342 | 342 | 342 | 340 | 340 | 340 | |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며 또다시 의사들을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복제약값을 2배~10배나 올려 보험재정을 파탄나게 만든 정책입안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먹지 못하고 대체 조제한 약을 먹게 됩니다. 생동성이 통과된 약이라고 똑같은 약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조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혈압 환자라면 혈압이 들쭉날쭉하지 않겠습니까? 또 약에 민감한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약을 바꾸어 주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며 또다시 의사들을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 지출이 많다고 이미 많은 약들을 보험에서 제외시켰으며, 앞으로 더 많은 약들을 제외시키려 합니다. 또한 효능 좋은 약들을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서 못 쓰게 합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복제약값을 2배~10배나 올려 보험재정을 파탄나게 만든 정책입안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간 약값을 의약분업 이전 가격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2010년 3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약품정책위원회





도라산(都羅山)의 눈물



전 경 홍 원장
수필가,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요즈음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북한은 남북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다 깨버리고 대남 전면 대결 태세를 운운하며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저들은 도대체 무얼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치는 것일까. 북한의 상투적인 망언에 심사가 편치 않은 나는 얼마 전 중학교 동기들과 6.25전쟁을 상기 시키는 임진각을 돌아보고 온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

관광버스를 타고 번잡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달려 임진각에 닿았다. 그곳은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산가족들이 몰려 온다고 한다. 비록 북한 땅은 밟을 수 없지만 임진강 너머 고향땅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평화의 종이 있는 밑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너머에는 기름진 논이 펼쳐 있었다. 종각 왼쪽 자유의 다리 끝에도 더 이상 갈수 없도록 쳐져 있는 철조망엔 노랑, 빨간 천 조각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북에 있는 혈육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천 조각에는 실향민들의 애잔한 마음도 함께 매달려 있는 듯 슬프게 느껴졌다.

철조망 저 멀리 도라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교각이 보였다. 임진각 뒤쪽

통일공원에는 투르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어 가까이 갔다. 우리 조국을 전쟁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많은 미군을 참전케 한 고마운 대통령이 아닌가. 인자해보였다.

유엔군 참전비 앞에서 우리 일행은 잠시 묵념을 올렸다. 나는 문득 625 때, 학도병에 자원입대 한 후, 소식을 모르는 형이 생각나 가슴이 아렸다. 그동안 어머니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영원히 형을 가슴에 묻으셨다. 625전쟁은 분명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인 것을 우리는 몸소 겪었기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배단 주위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데 이북 5도 사투리가 다 들렸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슬픈 사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나이 지긋한 분들은 과거 참전 용사들 같은데 군복차림에 부착된 훈장을 가리키면서 목청을 높였다. 전쟁터에서 겪었던 사연을 회상하는 듯했다.

도라산역으로 가는 도로 주변에는 지뢰밭으로 위험 표시가 되어있어 우리는 말없이 그곳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검문소에서 헌병이 밝은 표정으로 검문을 하고 친절이 안내해 주어 긴장이 풀렸다.

철도 운행이 중단된 지 52년만인 2002년 2월 20일에 망배열차가 다시 운행되었다. 700여명의 이산가족을 태우고 임진강을 건너던 역사적인 날에 미국 부시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도라산역에 우리는 도착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과 평부선의 철도역으로 경의선 역중 최북단이다. 우뚝 선 이정표에는 평양 205km라고 적혀있다.

대합실 구조는 훌륭했다. 그러나 이국땅도 아닌 동족이 함께 이용할 역인데 입국수속을 밟는 곳과 남북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마련되어있고, 북으로 가는 행선지와 시간표, 요금표시가 없다는 것이 몹시 유감스러웠다.

도라산은 경순왕이 신라 천년 사직을 고려 왕건에게 바치고 왕건의 딸인

낙랑공주와 결혼했는데, 공주가 마음이 우울한 경순왕을 위로하고자 그곳에 암자를 지었고, 경순왕은 산마루에 올라 경주 쪽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유례가 있다.

이 역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면회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면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긴 세월이 흘렀다. 노령의 방문객들이 역사 주변에서 먼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다.

그동안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흘린 눈물이 얼마인가. 신라 경순왕이 도라산에 뿌린 통한의 눈물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분단 민족의 눈물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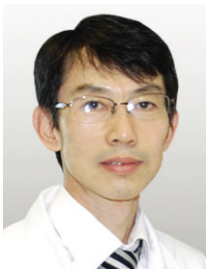
도라산역이 남북한 왕래하는 여객들로 들끓는 날은 언제 올까. 발길을 돌리려는 데 철도 침묵에 “이 철도가 한국 이산가족들을 연결하기를 바란다??”고 부시 대통령이 쓴 글씨가 눈에 띄었다. 우리는 혈맹국 수상다운 일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며 세계인의 관심사인데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서슴치 않고 육자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점점 남북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진정 전쟁을 세습하려는가. 온 겨레가 원하는 평화적 인 남북통일은 언제나 오려나?

가.팔.환.초.

(삶은 아득히... 빠르다)



서역수 교수
동국대 안과

‘가.팔.환.초.’ 무슨 사자성어 같지만, 이것은 가산, 팔공산, 환성산, 초례봉을 잇는 능선 종주산행 길의 준말이다. 산행 거리 45km, 종주시간 약 20시간으로, 대구 근교에서는 가장 긴 종주산행길이다. 보통 전날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후에 끝마치는데, 우리는 이 종주산행에서 체력과 의지의 한계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몽환적 정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나는 나비가 바다의 광대함과 깊이를 모르고 그저 푸른 신비에 매혹되어 그 바다 위를 날아가듯 그렇게 ‘가.팔.환.초.’ 산행에 덩벼들었다. 십수 년 전 가산에서 팔공산 끝자락인 갓바위(관봉)까지 약 12시간 종주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30대 후반, 산행에 어느 정도 육체적 탄력이 붙어있었던 시기이고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긴 산행을 경험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고,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세월의 잔해가 보이는 오십을 훌쩍 넘긴 나이이다. 내가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을지, 체력이 다해 중간에 포기할지, 또 무사히 종주를 마치더라도 후유증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삶의 의미란 대개 무의미하게 보이는 하루하루의 반복을 견뎌내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희망도 절망도 갖지 않고, 그저 단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작정이었다.

1. 가산바위에 바람이 불고

‘가.팔.환.초.’ 종주길 초입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환상적 분위기만큼이나 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으로 우리를 맞았다. 나는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진입하는 이방인의 불안감과,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모태의 자궁속으로 귀향하는 본능적 포근함의 상반된 두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번 산행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듯, 학명동에서 가산바위까지의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게 시작되었다. 마음과는 달리 중간에 한 번 휴식하며 약 한 시간에 걸쳐 가산바위에 정상에 도착했다. 탁 트인 시야로 멀리 대구의 야경이 원경의 아름다움으로 화려하게 반짝거렸다. 그 야경의 아름다움은 잠시 힘든 야간 산행의 고단함을 덜어주었지만 곧 나는 추위와 함께 바람을 느꼈다. 살속 깊이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 있으면 언제나 무엇엔가 쫓기는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내 의식은 폴 바레리의 시구 “바람이 인다… 살아봐야겠다.”와 같이 바람과 살아야겠다는 원초의 푸른 생명 사이의 단절과 비약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바람이 인다… 나는 걸어야겠다.” 불안을 숨기며 나는 또 걸어야만 했다.

2.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고

가산바위에서 한티재까지는 큰 오르내림이 없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세계 최고의 난봉 히말라야 K2봉까지 오른 ‘기용’이가 앞서 길을 잡았다. 그 뒤를 히말라야 원정을 여러 번 다녀온 대구 최고의 산꾼 ‘효순’이가 바짝 따른다. 나는 앞서기는 힘들고, 뒤처지기도 두려워 ‘효순’이 뒤를 조금 떨어져 걷는다. 내 뒤를 몽블랑과 히말라야를 다녀온 ‘성원’이와 일본 북알프스 등 많은 워킹 산행으로 단련된 ‘준형’씨가 마지막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체력으로나 산행경력으로나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 중에 하나인 ‘기용’이가 앞서가며 속도를 낸다. 나는 내가 처지며 이 긴 중추산행 전체에 지장을 줄까봐 내심 불안하다. 한티재까지 가보고 만약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 것 같으면 거기서 포기하고 하산할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따라붙었다. 중간에 “준형”씨가 조금씩 처지는 것 같아 약간 속도를 조절하였지만 예정 시간대인 세시간만에 한티재에 도착했다. 한티재는 주말 드라이브 족들로 도시의 환락가만큼이나 분비였다. 다소 머쓱한 기분이었지만 한 편 그들과는 다른 뿌듯함이 있었다. 한티재는 내게 내려가라 하였지만 조금 줄어든 불안과 그 만큼 늘어난 충만감을 안고 나는 또 걸어야만 했다.

3. 정상은 겨우 절반일 뿐이다

한티재에서 파계재까지는 평탄한 내리막이었다. 그러나 파계재를 지나 서봉과 동봉까지는 팔공산의 정상을 향한 오르막의 연속이다. 이 긴 오르막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한계를 시험한다. 힘든 산행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육체가 정신을 앞선다는 느낌이다. 어느 정도 육체적 한계를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기도 하지만, 긴 산행의 고통은 역시 육체가 앞선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체력이 그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이따금 자주 쉬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산행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시간도 자정을 지나 날씨가 바뀌었고 한밤의 차가운 산 공기는 체력을 더욱 빨리 쇠락시켰다. 새벽 2시가 넘어 팔공산 산줄기의 최고봉인 동봉에 도착했지만 동봉은 아직 절반도 못 왔다는 표식일 뿐이었다.

4. 폐에 해로운 캄캄한 공기를 마시며

동봉에서 신령재를 거쳐 갓바위와 능성동까지는 점차 고도가 낮아진다. 시침도 점점 동트는 새벽을 향해 낮아지고 있어 육체적 고통에 비해 심리적 압박감은

훨씬 덜해졌다. 그래도 동트기 전 짙은 어둠은 내 심리적 불안을 모두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시인 ‘이상’은 “캄캄한 공기를 마시면 폐에 해롭소.”라고 하였지만 신령재를 지나며 나는 폐에 해로운 캄캄한 공기를 마시며 또한 불안의 마지막 절정을 걸어가고 있었다. ‘가.팔.환.초’라는 단어를 마치 어떤 秘文이나 주술 같이 되뇌며 드디어 갓바위에 이르자, 동쪽 첫 햇살을 받은 부처님이 사뭇 얽은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맞이했다. 시간은 아침 6시였다.

5. 육체는 임계점에 이르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없는 하루하루지만 이렇게 어둠을 지나 새아침을 맞으니 다시 생기가 들고 또 다시 걸을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 갓바위에서 피로에 지친 눈으로 바라보는 환성산과 초례봉은 실제보다 더 없이 아득하고 멀어 보였다. 일단 능성동으로 내려가서 아침을 먹고 좀 휴식하여 몸을 추슬러 환성산을 오르기로 하였다. 우리는 라면을 끓여 아침을 대신하고 함께 격려하며 환성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높지 않은 오름이 그 어떤 산보다 높은 것 같이 느껴졌다. 이



오름은 육체의 임계점을 넘어 몸이 해체되는 기분이었다. 모든 사고는 정지되고, 육체의 감각은 소실되었으며, 단지 두발을 교대로 옮겨 놓는 행위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러나 두 발은 위대하고 걷는다는 것은 아득히 빨랐다. 그 멀고 먼 환성산을 넘고 결국 초례봉 정상에 섰다.

6. 어디에서나, 나는

초례봉 정상에서 보는 팔공산 산줄기는 길고 힘차게 뻗어있었다. 이렇게 긴 산줄기는 누구나 오르내리는 그 굴곡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높고 먼 곳에서 팔공산 주능선을 바라보니, 한 삶을 살아왔고 또 아직 살아야만 하는 삶에, 얼마간 가슴이 아프고 또한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그러나 그 삶의 굴곡 어디에서나 항상 나는 '나' 였고, 또 '나' 이기를 고집해왔다.

초례봉에서 보는, 길게 흐르는 팔공산 산줄기가 어느 곳에서 끝나는지 모르게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 끝은 점이 아니라 희미한 연속으로 사라진다.

내 삶도 어떤 시점에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사라지는 저 산줄기 같이 아득히...,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역시 어디에서나, 나는 '나' 일 것이다.

어디에서나
나는
나이가를 원한다.

희미한 골목길이나
가없는 벌판에서나
노을빛 바닷가서나

나는
어디에서나
나이가를 원한다.

나는
나를 부정하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거부하는 비바람 속에서도
나를 매몰하는 눈보라 속에서도

나는 어디에서나
내 진정
스스로 이기를 갈망한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1920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90이 되셨다, 일제시대에 전국적으로 한 군에 한 명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구 사범학교에 합격하셨다. 입학하고 나서 기차타고 고향에 도착하니 군수가 기차역까지 마중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다. 그 후 수학 전공으로 교단에 몸담고 계시다가 적성에 안 맞으셨는지 도중에 그만 두고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학교에만 계시다가 사회에 나와서 하시는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다. 어린 내가 기억하기로도 하시는 사업마다 별로 결과는 안 좋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넉넉치 않는 형편에서도 자식들 교육만은 남들 못지 않으셨다. 2남3녀 모두 본인 능력이 되는 한도까지 교육을 시키셨다. 그 당시 유치원은 정말로 특별한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곳이었다. 장남인 형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성당에 딸린 유치원에 다녔다고 기억되는데 차남인 나까지 유치원에 다닐 형편은 되질 못했다. 그 대신 아버지께서 저녁에 퇴근하실 때마다 학습지를 거의 매일 한권씩 사오셔서 나에게 풀게 하셨다. 그 후 4살 위인 형과 나는 국립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때만 해도 이런 별난 초등학교는 입학시험이 있었다. 유치원도 안 다닌 내가 무사히 합격한 것은 아버지께서 매일 한권씩 사오신 학습지 덕분이었다.

이러셨던 아버지께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 수십년 태우시던 담배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한번 갔다오시고 난 뒤 딱 끊으신 아버지였다. 몸집은 크지 않으시나 사범학교 시절 기계체조로 단련된 건강한 체력을 갖고 계셨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어머니가 1989년에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홀로 되신 아버지께서는 포항에서 십수년간 사시다가 수년전부터는 서울 장남집에 올라가셨는데 서서히 치매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을 이제는 형도 더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낮도 낮이지만 밤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렇다고 사업하는 형이 매일 밤마다 아버지를 붙들고 함께 지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외래로 다니시다가 드디어 자식들 간의 상의 끝에 입원을 결정하였



김 광 만 원장
지곡그린의원(포항)

다. 처음에는 찾아볼 때마다 이제 다 나았으니까 집에 가자 하시던 아버지께서 요새는 거의 하루종일 눈을 감고 주무시듯 누워 계신다. 평생 같이 하시던 일기장도 작년을 마지막으로 주인을 잃었다. 하루 종일 보시던 TV 뉴스도 이제 더이상 찾질 않으신다. 첫장부터 끝장까지 광고까지 꼼꼼히 보시던 신문도 들고는 계시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가끔 내가 찾아봐도 알아는 보시나 더이상 말씀은 없으시다. 외국에 가 있는 하나 뿐인 친손자도 어느날 갑자기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다. 매일 걱정하시고 용돈이라도 드리면 귀국하면 준다고 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해놓으시곤 했는데 이제는 안부조차 묻지 않으신다. 지난 번에

가니까 산소를 쏴고 계셨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는 척만 하시고는 다시 주무시길래 옆에서 두어시간 동안 나도 그냥 앉아있었다. 처음에 입원하실 때만 해도 혼자서 화장실에는 다니셨는데 이제는 용변 처리까지 남에게 맡겨야할 상황이 되었다. 평생 깨끗하시던 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물론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몇달을 누워계시다 보니 팔다리는 그냥 뼈 밖에 없다.

가끔 진료실에 있으면 동네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끊으러 온다. 남의 일 같지 않다. 한 글자라도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 문제 특히 치매는 한 가정의 존립 문제를 떠나 사회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세대가 부모 나이가 될 때는 아마 단언하는데 평균 수명이 100세 가까이 될 것이다. 아무도 치매같은 노인성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전국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넘쳐날 것이고 이런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이 자기가 평생 번 돈의 반을 죽기 전 6개월동안 다 쓴다고 한다. 물론 과

장된 말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노인 문제를 표현한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아직 어른이 안 된 것 같다. 영원히 어른이 안 되어도 좋으니 침대에 그냥 누워계시더라도 오래오래 계셨으면 한다. 작년 말 포항시의사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그 동안 남편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다. 거기서 읽어드린 <아버지>란 글을 덧붙인다. 소청과 사이트에서 퍼온 글인데 출처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

아버지가 또 용돈을 주려 할 때,
그때 아버지는 외로운 거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라서
자식이 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할 때가 많다.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지만,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용돈을 준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줄때,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볼 때,
아버지는 외로운 거다.
지난밤 파음한 탓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출근을 할 때
아버지는 종종 어제 벗어둔 양말을
다시 신고 나갈 때가 있다.

그때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참으로 쓸쓸하다.

자식들이 무심코
"아버지, 발 냄새 나요!"하며
코를 잡을 때
아버지는 웃거나 하지만
사실 아버지는 무안한 거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평소보다 더 열광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응원할 때,
아버지는 외로운 거다.

피곤하다고 휴일에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지난 신문만 뒤적거리고 있을 때
사실 아버지도 자식의 손을 잡고
햇살 좋은 공원을 걷고 싶은 거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주, 한 주를 견디며 산다.

지켜야 할, 책임져야 할 가족의 무게로
아버지의 두 어깨는 지치고 힘들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곤히 자고 있는 딸의 볼에
얼굴을 부빌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딸이
보고 싶었던 거다.

따가운 수염이 드문 드문 난 얼굴에,
술 냄새를 풍겨도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하다.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면서
"아휴, 술 냄새"하며 귀찮아 해도
아버지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아버지는 딸 아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꺼내본다.
그러고는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내 딸아이 참 귀엽죠."

그렇게 아버지는 딸아이가 보고
살을수록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버지는 외롭다.

친구가 멋진 휴대폰을 자랑하며 들고
다닌다고 아들이 투정을 부릴 때
아버지는 화를 내지만
사실은 더 비싼 휴대폰을
사주고 싶은 거다.

자식이 사달라는 것을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작고 초라해진다.
그럴 때 아버지는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아버지가 평소와는 달리
와인과 장미꽃을 사들고 귀가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어떻게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메마르고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아버지가 오늘 꽃을 사들고 온다.

1,000송이의 꽃보다 더 많은,
마음에 핀 꽃을 가슴에 달고,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까닭에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애꽃은 담배만 태우는 사람이다.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아버지는 외롭다.

아버지는 세대 차이란 말을 모른다.
아버지에게 세대란
중요한 말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들의 든든한 가동이 되고
살을 뿐이다.

그렇기에 자식들에게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성모를 가서
아버지가 자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식들에게 알고 있느냐고 물을 때,
아버지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가 많이 그리운 거다.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는 못 입고 못 먹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는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그 시절의 당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리운 거다.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 말하고 싶은 거다.

어느날 모처럼 일찍 귀가한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하자며 부산을 떠들면,
아버지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많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술 친구들이 아니라,
회사 동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인 거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인 거다.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내일 가족 사진 찍으러 갈까?"
하면 아버지는 외로운 거다.

한참 말도 없이 티브이를 보다,
우리도 가족 사진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어, 한다면
아버지는 스스로 잘못
살아왔는지 모른다고,
어쩌면 자신은 좋은 아버지가
아닌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다.

돈 버느라 바빠 제대로 된
가족 사진 하나 찍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거다.

그렇게도 열심히 일한건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어느 날 문득 가족을 잃었다고
아버지는 느낀다.

그럴 때 아버지는
거실 벽에 단란하게 찍은
가족 사진 하나를 걸어두고 싶은 거다.



일상의 양식

항상 무수히
내려옵니다
시간도 공간도
어떻든 많은 재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혼잡하고
조립하고 조잡하고
취하고 버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 많은 방법과
수단이 있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삶의 주도자입니까
맛 있는 요리사입니까

그럼 이렇게
묻고 있는
당신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 길

언제 누가 어디서
어디로 떠났음
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름

왜 그랬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 없음

한 동안
보이지 않다가
사람의 숲을 지나
말들의 마을을 거쳐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
목적되었음

길은 연결되다
안되다 있다
없어지다 모이다
갈라지다 혼돈임

현재 누구도
아무도 보이지 않음

계속 가고 있었을까
지쳐 쓰러졌을까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까 여러
경우수의 하나로
추측됨

매우 어려우나
계속 보고할 것임



김 의 흥 원장
김의홍산부인과의원(구미)

왜 지금 판소리인가?



이재원 원장
화인비뇨기과의원(포항)

판소리란 말은 ‘판’과 ‘소리’가 결합된 말이다. ‘판’이란 말은 ‘씨름판, 놀이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뜻하는 공간적 의미, 또는 ‘살판, 죽을 판, 난장판, 떡자판’처럼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드러내는 의미, 그리고 ‘판굿, 판줄, 판염불, 판춤’처럼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전문인들이 벌이는 놀이나 행위 등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소리’는 목소리를 표현 매체로 삼는 성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판소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전문인들의 목소리로 펼쳐내는 성악 예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소리의 역사는 약 300여년이라 말한다. 18세기 숙종 무렵에 판소리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서양음악사에 견주어 대비시켜보면, 비발디, 바흐, 헨델이 활동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판소리가 성행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서양음악사는 작곡가에 따라 시대를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듯 판소리의 역사 또한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 즉 명창에 따라, 그리고 전승 소리의 종류에 따라 시기를 분류하는 게 보통이다.

판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판소리하면 영화 ‘서편제’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93년에 개봉하여 서울에서만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반응이 대단했고 판소리를 일반인에게 알리는데 기여한 대표적 영화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 제목에서 말하는 ‘서편제’란 판소리의 전승 지역에 따른 분류를 근거로 한 것인데, 섬진강의 동쪽이나 서쪽이나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로 나뉘고 이외의 충청,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소리를 중고제라 분류한다. 이러한 판소리의 분류는 19세기에 들어 판소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나타난 분류이긴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명창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어 현재 전승되는 판소리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판소리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동리 신재효이다. 학창시절 판소리를 집대성한 사람으로만 암기되고 있는 신재효는 판소리 광대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으며,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을 비롯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양성하기도 한 인물이다.

명창에 따른 판소리의 역사는 흔히 '전기 8명창시대'와 '후기 8명창시대'로 나뉜다. 대략 전기 8명창시대는 19세기 전반과 중반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는 다수의 명창들이 배출되어 판소리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판소리의 전성기를 열었던 시기이다. 다시 서양 음악사와 대비해 보면 고전주의를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린 베토벤과 올해 탄생 200주년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쇼팽과 슈만 등으로 대표되는 낭만주의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8명창'은 여덟 명의 명창만이 활동했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시 활동했던 판소리명창들을 여덟 명 정도로 총괄하는 의미이며, 권삼득, 송홍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박유전, 황해천, 주덕기, 송광록, 김성옥, 방만춘 등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명창들이다.

후기 8명창시대는 1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데, 바그너, 브람스, 차이콥스키 등으로 대표되는 서양 음악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판소리는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음악적으로 그 예술성이 강화되어 판소리 애호층이 서민에서부터 양반층은 물론 중앙관료에까지 넓어지고 판소리의 공연 무대도 궁중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대원군이나 고종임금이 판소리를 좋아하여 판소리 명창들은 궁중에서 판소리 공연의 대가로 많은 경제적인 보상과 명예직을 제수 받았다. 지금도 큰 판소리대회에서 제일 큰 상이 다른 대회와 달리 '대통령상'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아무튼 이 시기에 활동했던 명창으로는 박만순, 이날치, 김세종, 송우룡, 정창업, 정춘풍, 김창록, 장자백, 김찬업, 이창윤, 김정근, 한송학 등이다.

근대에 들어서 판소리는 다른 문화분야와 마찬가지로 서구 문물의 유입과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 등으로 판소리 전승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교통의 발달과 음반의 보급, 다수의 극장무대와 같은 공간의 마련 등으로 서구나 일본의 음악문화가 대중적인 공연무대의 주류를 이루면서 전통음악 연주공간은 점차 축소된다. 더욱이 판소리명창들을 후원했던 집권계층과 왕실이 사라지자 판소리가 행해지던 공간은 축소되고 판소리명창들은 '협률사'를 조직하여 대중을 찾아 전국을 떠돌게 된다.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모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극이다.

규모에서의 비교를 떠나서 1598년 공연된 자코포 페리의 '다프네'를 최초의 오페라로 본다면, 판소리의 음악양식이 중국의 경극과 같은 새로운 공연양식에 접목되어 탄생한 1903년 창극 '춘향전'이 최초의 창극공연이니 서양의 오페라와는 약 300년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당시 협률사의 공연에 참가했던 명창들을 포함하여 이시기에 활동한 명창들을 '근대 5명창'이라고 하는데 김창환, 이동백,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 이선유, 유성

준, 전도성, 박기홍, 김채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근대 5명창 뒤를 이은 판소리 명창들이 바로 장판개, 김정문, 박봉래, 공창식, 박동실, 박중근, 정응민, 김봉학, 임방울, 김연수, 강장원 등이다.

194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한 민족문화말살정책과 해방 이후의 급격한 서구화 추세 속에서 판소리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임방울, 정응민, 박봉술, 신영채 등과 같은 고집스러운 명창들에 의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음악 전반의 침체는 뜻있는 사람들과 정부의 자성으로 이어져 1964년 판소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김연수, 김소희, 김여란, 박초월, 박녹주명창이 최초로 판소리 분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본인이 존경하는 한 인물을 거론하고 싶은데 바로 뿌리깊은나무의 사장이었던 한창기이다.



앞서 언급한 영화 '서편제'에서 '유봉' 역을 맡았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기자생활을 했던 뿌리깊은나무는 사장인 한창기의 기획으로 1976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시 최고 수준의 명창들을 모셔다가 지속적인 공연을 해왔다. 그리고 당시 판소리의 녹음에 대중적 관심이 전혀 없던 시기에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명고수 김명환의 장단으로 조상현, 정권진, 박봉술, 한애순 명창의 녹음으로 남겼다.(판소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브리태니커에서 나온 이 음반을 권한다.) 이런 녹음을 바탕으로 판소리의 예술성과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어 2003년, 판소리는 유네스코가 정한 인류 구전 및 세계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다. 판소리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공식 인증 받은 셈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 지정 문화재나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가 판소리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더 없이 기쁜 일이나, 현실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보존해야만 할 희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판소리가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전통은 그대로 재현하고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지금시대에 우리가 신라시대의 석굴암을 똑같이 만든다 해서 명품(名品)이 되겠는가? 현재의 생활상을 담은 시대정신을 예술적으로 잘 반영해야만 훌륭한 예술품이 되는 것이고 살아 있는 문화재가 되는 것이라 믿는다. 껍질인 형식만 반복적으로 베낄 게 아니라 본질이라 할 그 정신을 오늘에 맞게 찾아 계승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에 맞는 예술의 재창조는 전통의 완벽한 이해에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판소리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동리 신재효이다. 학창시절 판소리를 집대성한 사람으로만 암기되고 있는 신재효는 판소리 광대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으며,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을 비롯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양성하기도 한 인물이다.(진채선에 대한 신재효의 특별한 애정이야기는 판소리사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또한 당시까지 구전심수로 전승되어 오던 판소리를 정리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게 하고, 판소리 외에 단가를 창작, 수집, 정리하는 등 판소리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신재효는 전북 고창이 고향으로, 고창에서 아전을 지냈다. 판소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판소리 명창 김소희의 고향이기도 한 고창에는 동리 신재효 고택을 비롯하여 동리 국악당, 고창 판소리 박물관 등이 밀집해 있어 판소리 중흥의 진원지라 할 만하다.

우리 경북의사회가 마침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전북의사회라는 사실이 판소리를 좋아하는 이에겐 그래서 더욱 반가운 일이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0년 1~3월)

포항시

강 정 훈_M아이센터안과의원
(791-804)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87-3
T. (054)230-7628 / F. 249-8276

권 상 오_동해큰연합의원
(790-839)포항시 남구 해도동 479-28
T. (054)273-8277 / F. 273-8278

김 범 석_김앤이유외과의원
(791-842) 포항시 북구 죽도동 104-11
T. (054)274-6875 / F. 274-6876

경주시

김 왕 식_친절산부인과의원
(780-040) 경주시 동부동 2-21
T. (054)742-3773 / F. 742-3993

김천시

김 종 철_강연합의원
(740-090) 김천시 평화동 10-1
T. (054)436-9110 / F. 437-9120

안동시

김 승 모_안동밝은안과의원
(760-180) 안동시 남문동 189-29
T. (054)853-6500 / F. 853-9400

김 창 효_서울신통의원
(760-150) 안동시 대석동 270-6
T. (054)842-3737 / F. 852-3210

구미시

김 인 석_옥계정형외과의원
(730-824) 구미시 옥계동 833-1
T. (054)476-9112 / F. 476-9103

김 민 석_우리들의원
(730-360) 구미시 진평동 67-4
T. (054)476-2233 / F. 476-2239

이 심 원_금오재단상모삼성연합의원
(730-120) 구미시 상모동 47-5
T. (054)461-8277 / F. 461-8276

이 준 호_인동정형외과의원
(730-320) 구미시 인의동 700-2
T. (054)476-7040 / F. 476-7042

영주시

최 병 규_미래아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730-300) 구미시 구평동 1005-10
T. (054)472-5358 / F. 472-0180

박 정 일_영주밝은안과의원
(750-907) 영주시 영주1동 379-19
T. (054)634-9700 / F. 636-9702

상주시

유 찬 덕_늘편한외과의원
(742-020) 상주시 성동동 645-1
T. (054)533-7600 / F. 533-7620

문경시

류 하 근_명내과의원
(745-887) 문경시 점촌동 267-27
T. (054)556-5775 / F. 556-5995

경산시

박 준 순_편안한우리연합의원
(712-804) 경산시 중방동 863-8
T. (053)812-0365 / F. 812-0364

서 영 중_영이비인후과의원
(712-110) 경산시 정평동 130 정평현대타운상가
T. (053)814-0075 / F. 814-0072

윤 석 진_경희의료재단옥산서울의원
(712-800) 경산시 옥산동 863-4
T. (053)802-8833 / F. 802-8833

의성군

이 철 훈_안계서울의원
(730-82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50-17
T. (054)862-7778 / F. 862-7779

청도군

김 미 정_청도동산의원
(714-863)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9-1
T. (054)373-9331 / F. 373-9332

울진군

오 성 혁_서울의원
(767-831) 울진군 후포면 삼울리 167-18
T. (054)788-7585 / F. 788-7586

Since 1919
Your Partner

PENTAX
EMPOWERING EXCEL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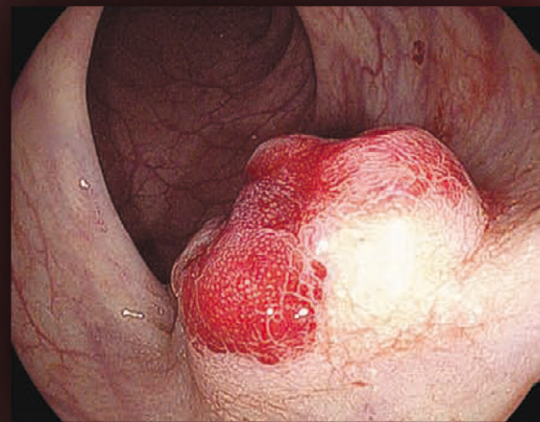
PENTAX® 빛의 기술은

어제처럼 오늘도 당신의 길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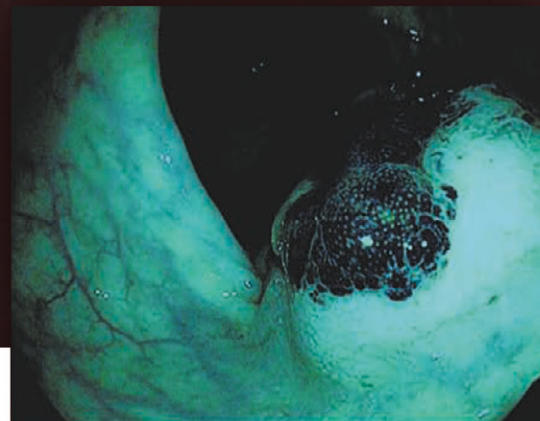
함께합니다.



INTRODUCING PENTAX *i-SCAN*™
THE PREMIER ENDOSCOPIC IMAGE
ENHANCEMENT TECHNOLOGY
PENTAX - harnessed technology Empowering Excellence
through advanced detection, accelerated efficiency.



Turning on one of the i-SCAN modes, notice how the pit patterns, tissue topography, and surrounding vascularity come to life.



The mere touch of a button activates a tone-enhancing mode of i-SCAN, suddenly revealing the sub-mucosal vascularity on the left.

금강지애펜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22-16 한미빌딩 1층
TEL. 053) 753-9556 FAX. 053) 753-9505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중외신약